

# 혼자라서 함께하기 즐거워요

2022 북클럽 페가수스 논제집



혼자 읽기에서  
함께 읽기로

2022 북클럽 페가수스 논제집

## 차례

### #프롤로그

---

북클럽 폐가수스, 우리의 시작 (허보람)	4
산으로간 독서토론, 논제로 잡아라 (유영미)	5

### #그림책

---

행복한 청소부	8
프레드릭	16
여우	21

### #소설

---

변신	28
스토너	36
달과 6펜스	43
자기앞의 생	50
빨간 머리 앤	57
허삼관매혈기	64
올리브 키터리지	72
호밀밭의 파수꾼	81

## #비소설

---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87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	96
생각의 좌표	103
사법부	110

## #에필로그

---

독서모임을 대하는 자세 (이혜숙)	117
독서토론에 진심입니다: 2022 페가수스 참여 후기	119

프롤로그

# 북클럽 폐가수스, 우리의 시작

허보람

---

2022년 3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독서토론 진행자 실전 과정>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6차시로 구성된 본 과정에서 2주간 논제 제작법과 독서토론 진행법을 배우고, 스피치 코칭을 받았습니다. 3차시부터 본격적인 독서토론 실습이 이루어졌고 매 시간 남다른 깊이의 해석이 오가는 토론으로 우리는 '함께 읽기'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전생부터 진행만 한 사람들처럼 유연하고 편안하게 진행하며 토론을 즐겼다. 이 팀에서 만들어질 후속 모임은 이미 올해의 책모임 후보다."

담당 강사였던 김민영 작가님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실전 과정이라는 강의명의 무게 때문이었을까요? 책임감과 열정으로 뚝뚝 뭉친 우리를 모이게 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6번의 수업이 끝나고 경기도에서부터 경상도까지 누구보다 책을 사랑하고 토론에 진심인 10명이 모였습니다. 모임명 '폐가수스'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읽은 그림책 <행복한 청소부>에서 따왔습니다. 아저씨가 음악가들이 다시 살아와 친구가 되는 느낌을 받았던 순간과 책속의 비밀을 발견했던 순간에 그의 곁에는 '날개 달린 말'이 있었습니다. '폐가수스'는 우리 역시 아저씨가 느꼈을 환희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오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논제 하나로 끝없이 이야기가 이어지던 순간에 느낀 흥분, 그 속에서 연결되었던 우리의 삶, 사고가 확장되는 짜릿함,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도 '폐가수스'가 날갯짓하고 있겠지요?

'폐가수스'는 이제 15번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했던 질문들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서로의 세계를 나누며 벅차올랐던 감정을 이 논제집과 함께 여러분도 느끼기를 바랍니다.

프롤로그

# 산으로 간 독서토론, 논제로 잡아라

유영미

---

독서 모임에서의 논제란 질문이다. 거창한 질문이 아니어도 좋다.

소소한 물음표부터 시작한다. (...)

작은 질문이 큰 생각으로 자라나는 경험이 쌓이며,  
자기도 몰랐던 고정관념이란 각질을 털어낼 수 있다.

— 김민영 외, <질문하는 독서의 힘>, 북바이북 中

오고 가는 생각들로 팽팽해졌던 분위기가 느슨해진다. 방금 나온 발언에 동조하기도 침언하기도 난망하다.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는 마음에 입을 떼자니 아무 말 대잔치.

우리의 생각은 열려있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사방으로 튀어 나간다. 하물며 사람이 여럿이라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기만의 목적지를 향한 발언이 등장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독서토론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서토론은 책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다. 정해진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대화의 소재는 즐거리일 수도, 읽는 동안 또는 읽은 후에 든 생각일 수도 있다. 다수의 생각이 오가며 섞이는 자리에 질서를 부여하지 않으면 토론은 먼 산을 떠돌게 된다.

산으로 간 대화, 삼천포로 빠진 논의를 제자리로 돌리려면 책의 맥락을 잡고 있어야 한다. 책이 하려는 말과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그도 아니면 주요 키워드라도 붙들고 있어야 토론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논제는 길 떠난 토론을 위한 이정표가 된다.

토론에서 일어나는 일은 듣고 말하는 것이 전부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담은 말을 듣고 내 생각을 목소리로 전하는 것, 단순해 보이는 이 행동이 말처럼 쉽

지 않게 느껴질 때가 토론의 자리다. 정리되지 않은 사고는 말하기와 듣기를 곤란하게 한다.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발언이 입에서 나오고 한국말을 들었는데 번역기가 절실해지기도 한다. 생각을 정리된 말로 조립하고 귀에 들어온 결이 다른 말을 해독하려면 대비를 해야 한다. 이때 또 필요한 것이 논제다.

시험 문제를 미리 알면 답을 궁리할 수 있듯이 토론에서 나눌 질문을 읽어보는 것만으로 대화가 달라진다. 논제에 인용된 페이지를 다시 훑어보고 물음을 숙고하는 동안 하고 싶은 말들이 머릿속에 체계를 갖추기 때문이다. 질서 정연한 말이 잘 들리는 말이 된다. 모임에서 다룰 논제를 추출하는 과정은 논제를 읽고 발언을 준비하는 것과는 또 다른 토론 준비다. 논제를 쓰려면 온갖 고려사항을 마주해야 한다. 책 내용과의 관련성, 시의적절함, 다양한 응답 가능성 등을 헤아려보면서 이해하기 쉽고 객관성을 견지하는 논제 쓰기, 북클럽 페가수스의 참여자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이 작업을 이어왔다.

우리는 논제 쓰기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토론 도서를 정하고 매 토론마다 각자의 생각을 정제한 논제로 이야기를 풀었다. 직접 쓴 논제가 실제 토론의 장에서 어떻게 읽히고 생각을 끌어내는지 확인한 셈이다. 자발적인 논제 쓰기와 침묵의 시간이었다. 혼자라면 아무리 굳센 목표 의식이 있어도 힘들었을 일이다. 공유 문서에 올라오는 참여자들의 논제를 보며 질문 하나라도 보태보려 애쓰는 동안 우리의 무언가가 변화했다. 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논제는 어떻게 써야 할까.

혼자 읽고 말면 될 책을 시간을 내서 모여 토론하고, 이야기만 나뉘도 될 텐데 머리를 싸매고 논제까지 만드는 우리, 북클럽 페가수스. 뭘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잘' 듣고 '잘' 말하고 싶으니까.

---

# 그림책

행복한 청소부

프레드릭

여우

---

## 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글, 안토니 보라틴스키 그림 | 풀빛 | 2000

인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목표가 되어 무던히 노력한 결과 받게 되는 인정과 내가 좋아서 한 일이 타인의 마음을 움직여 받게 되는 인정. 행복한 청소부가 받은 인정은 후자였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올림을 주었죠.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던 걸까요? 용기 없었던 제 삶을 떠올라서 더 부러웠고, 더 고마웠고, 더 박수쳐주고 싶었던 아저씨의 삶.



크리스마스에 밤새 거실에서 음악을 듣던 아저씨는 “오래 전에 죽은 음악가들이 다시 살아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던 어느 날, 깨닫습니다. “말은 글로 쓰인 음악이구나. 아니면 음악이 그냥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리의 올림이거나.” 그날의 아저씨가 어찌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질문과 함께 아저씨를 만나러 가실까요?

1

여러분은 <행복한 청소부>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2

아저씨가 청소국에 출근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장면에는 파란색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저씨는 파란색 작업복과 파란색 고무장화를 신고, 파란색 사다리와 파란색 물통, 파란색 솔과 파란색 가죽 천을 받아 듭니다. 그리고 파란색 자전거를 타고 청소국 문을 나서는데요, 여러분은 아저씨 걸을 채우는 “파란색”을 어떻게 보셨나요?

## 3

아저씨는 작가와 음악가의 거리를 청소하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늘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 신문을 꼼꼼히 보며 음악회와 오페라 공연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음악회장이나 오페라 극장에 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아저씨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 날이 오면 입장권을 사고, 옷장에서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음악회장이나 오페라 극장으로 갔단다. 이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음악 소리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 조심조심 커지다가, 둥글둥글 맞물리다, 산산이 흩어지고, 다시 만나 서로 녹아들고, 바르르 떨며, 움츠러들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우뚝 솟아 오르고는, 스르르 잦아들었어.

아저씨는 오싹 몸을 떨며 멍한 상태에서 깨어났어.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우르르 걸어가는 발소리...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왁자지껄하며 밖으로 나갔어. 아저씨는 주위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

## 4

저녁마다 책 속의 이야기들에 잠겨 있던 아저씨는 “아하! 말은 글로 쓰인 음악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음악가들이 음을 대하듯, 곡예사가 공과 고리를 대하듯, 마술사가 수건과 카드를 대하듯, 작가들은 글을 대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아저씨의 생각의 변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녁이면 저녁마다 아저씨는 책 속의 이야기들에 잠겨 있었어. 아저씨가 거기서 발견한 비밀들은 음악에서 발견했던 비밀들과 무척이나 비슷했어. 아하! 말은 글로 쓰인 음악이구나. 아니면 음악이 그냥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리의 울림이거나. 아저씨는 생각했어. 음악가들이 음을 대하듯, 곡예사가 공과 고리를, 마술사가 수건과 카드를 대하듯, 작가들은 글을 대했던 거야. 아저씨는 작가들과도 음악가들과 같이 친구사이가 되었어.

## 5

아저씨는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고, 시를 읊조리고, 가곡을 부르고, 읽은 소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표지판을 닦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 화자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표지판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시와 음악을 아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니”라고 말을 덧붙이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는 걸음을 멈추었어. 파란색 사다리를 올려다보는 깜짝 놀랐지. 그런 표지판 청소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 대부분 어른들은 표지판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시와 음악을 아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니. 청소부가 시와 음악을 알 거라고 상상도 못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저씨를 보자 그들의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진 거야. 그들의 고정관념은 수채도량으로 들어가, 타 버린 종잇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어.

## 6

아저씨는 음악을 들으며 오래 전에 죽은 음악가들이 다시 살아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저씨 앞에 '날개 달린 말'이 처음 나타납니다. 책 속의 이야기에서 비밀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또 한 번 '날개 달린 말'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아저씨는 대학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지만 강연을 하는 건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며 교수가 되고 싶지 않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다시 '날개 달린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 7

아저씨는 일하는 동안 자기 자신에게 음악과 문학을 강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아저씨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그것을 인식한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더욱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저씨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보셨나요?

8

아저씨는 방송출연을 하게 되고 유명해집니다. 가는 곳 마다 아저씨의 사인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진을 치고, 대학에서 강연요청도 들어옵니다. 아저씨는 대학교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며 강연을 거절합니다. 책에서는 “그리고 아저씨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표지판 청소부로 머물렀단다.”라며 이야기를 끝내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아저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 대학교수(새로운 일에 도전해 본다)
- 청소부(하던 일을 계속한다)

아저씨가 닦아 놓은 표지판은 금방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훌륭한 표지판 청소부는 그런 일에 기죽지 않고, 더러움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저씨의 이러한 태도에 다른 청소부들도 진심으로 아저씨가 최고라고 인정하고, 표지판 청소부 반장과 청소국 국장도 이따금씩 아저씨를 찾아와 칭찬합니다. 아저씨는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자기가 맡은 거리와 표지판들을 사랑했습니다. 아저씨는 “만약 누군가가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없다.’라고 대답했을 거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자기 일에 만족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아저씨의 마음에 공감을 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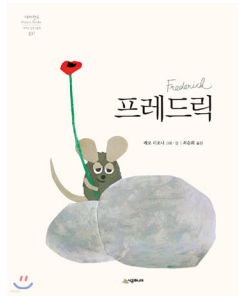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프레드릭

레오 리오니 글, 그림 | 시공주니어 | 1999

<프레드릭>의 저자 레오 리오니는 칼데콧아너 상을 네 번 수상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님입니다. 저자는 들쥐 프레드릭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와 색깔을 지키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어린이 독자 뿐만 아니라 바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른 독자에게도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노동의 의미와 예술의 가치, 공동체 속 개인의 역할 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1

여러분은 <프레드릭>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 2

늦가를 부럽 다른 들쥐들은 겨우살이 준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한 마리,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들쥐들이 프레드릭에게 왜 일을 하지 않냐고 묻자 프레드릭은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은 중이야.”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프레드릭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겨울이 다가오자, 작은 들쥐들은 옥수수과 나무 열매와 밀과 짚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들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한 마리,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프레드릭, 넌 왜 일을 안 하니?”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프레드릭이 대답했습니다.

## 2-1

여러분은 프레드릭의 이런 행동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 2-2

여러분은 프레드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야 하는 일
- 하고 싶은 일

### 3

겨울이 되어 저장해 놓은 먹이가 모두 떨어지자 들쥐들은 배가 고파 재잘덜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때 프레드릭은 가을날 모아둔 자신의 양식 '햇살'로 들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프레드릭이 커다란 돌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눈을 감아 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 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했습니다.

프레드릭이 햇살 얘기를 하자, 네 마리 작은 들쥐들은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마법 때문이었을까요?

## 4

들쥐들은 프레드릭이 모아 놓은 햇살과 색깔과 아름다운 낱말에 추위와 배고픔을 잊고 행복합니다. 프레드릭의 멋진 이야기를 들은 들쥐 친구들은 프레드릭에게 “넌 시인 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프레드릭은 얼굴을 붉히며 “나도 알아”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프레드릭의 대답을 어떻게 보셨나요?

### 4-1

여러분은 프레드릭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 들쥐들의 반응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 4-2

여러분은 프레드릭이 모은 양식 중에 어떤 것에 가장 끌리시나요?

- 햇살
- 색깔
- 이야기

## 5

여러분은 프레드릭이 읊어준 마지막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굵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유월의 네 잎 클로버는 누가 피워 낼까?  
 날을 저물게 하는 건 누구일까? 달빛을 밝히는 건 누구일까?

하늘에 사는 들쥐 네 마리.  
 너희들과 나 같은 들쥐 네 마리.

봄쥐는 소나기를 몰고 온다네.  
 여름쥐는 온갖 꽃에 색칠을 하지.  
 가을쥐는 열매와 밀을 가져온다네.  
 겨울쥐는 오들오들 작은 몸을 웅크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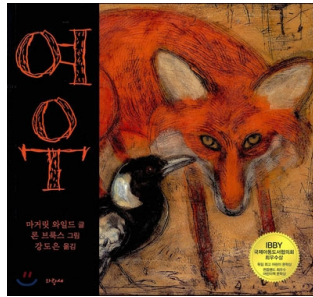
계절이 넷이니 얼마나 좋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사계절.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여우

마거릿 와일드 글, 론 브룩스 그림 | 파랑새 | 2012

<여우>는 상실과 위로, 우정과 안정, 유혹과 배신, 그리움과 희망을 담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현대의 고전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 이야기는, 독일, 브라질, 일본 등 수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두 번의 최우수 문학상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이 책은 충격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강렬한 색채와 독특한 문자의 나열로도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전통적인 수채화 도구보다는 포크나 철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그림의 질감을 풍부하게 살려주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화재로 타버린 숲에서 날개를 다친 까치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개가 서로를 믿고 의지를 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자 개와 까치는 관계와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1

여러분은 <여우>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2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개는 여우를 반겨 주었지만, 까치는 몸을 잔뜩 움츠리고 뒷걸음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개와 까치는 동굴 입구에 앉아 쉬었고, 둘은 그렇게 함께 지내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우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고, 그럴 때마다 까치는 여우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까치가 개에게 “여우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애야.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 조심해.”라고 말하자, 개는 까치에게 “여우는 좋은 아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 3

날개를 다쳐서 날지 못하는 까치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여우가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서 "너희가 달리는 걸 보았어. 정말 특별해 보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우는 까치의 다친 날개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 4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개는 날개를 다친 까치를 등에 태우고 달리곤 했습니다. 까치는 바람이 깃털 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을 느끼며 "내가 너의 눈에 되어 줄게. 너는 나의 날개가 되어줘."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느 날 나타난 여우가 "하늘을 나는 게 어떤 건지 기억해? 진짜로 나는 것 말아야!"라고 속삭이며 함께 떠나자고 하는데요. 그날 이후 까치는 '이건 하늘을 나는 게 아니야. 하늘을 나는 건 절대 이렇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까치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 5

어느 날 새벽, 까치는 잠들어 있는 개를 혼자 남겨두고 여우를 따라나섰습니다. 까치를 태운 여우는 전속력으로 달려 평야와 소금밭을 질주해서 이글거리는 붉은 사막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몸을 흔들며 까치를 등에서 떨어뜨립니다. 여우는 "이제 너와 개는 외로움이 뭔지 알게 될 거야."라고 말하며 까치를 혼자 남겨두고 가버립니다. 여러분은 여우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셨나요?

## 6

여우는 까치를 등에 태우고 숲을 내달려 먼지 날리는 평야와 소금밭을 질주하고 이글거리는 붉은 사막까지 달립니다. 그러던 여우는 멈춰서 "벼룩이라도 털어내듯" 까치를 등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와 개는 외로움이 뭔지 알게 될 거야"라는 말을 하고 떠납니다. 조금 뒤 아주 먼 곳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자는 이 울음소리가 "승리의 소리인지 절망의 소리인지"알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 승리
- 절망
- 기타

## 7

붉은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까치는 순간 혼자 남겨두고 온 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치는 “조심조심, 비틀비틀, 폴짝폴짝.” “친구가 있는 곳을 향해 멀고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까치가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 8

큰불로 새까맣게 탄 숲에서 한쪽 눈을 잃은 개는 날개 다친 까치를 발견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까치를 위로하며 개는 까치를 등에 태우고 다니며 날지 못하는 까치의 다리가 되어 줍니다. 까치 역시 자신이 본 것들을 개에게 말해 주며 개의 눈이 되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던 중에 여우가 나타납니다. 여우는 그들 사이에서 강한 질투를 느끼고 끝내 둘을 갈라놓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결과에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 개
- 까치
- 여우
- 기타

9

이 책에는 개와 까치, 그리고 여우가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만 주인공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의 인물들이 의미가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여우> 인데요. 여러분은 왜 책의 제목이 <여우>라고 생각하시나요?

10

개와 까치 그리고 여우의 이야기를 읽고, 이 그림책과 가장 잘 어울리는 키워드를 아래에서 골라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우정 | 질투 | 유혹 | 배신 | 외로움 | 좌절 | 위로 | 도움 | 희망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소설

변신

스토너

달과 6펜스

자기앞의 생

빨강머리 앤

허삼관 매혈기

올리브 키터리지

호밀밭의 파수꾼



# 변신

프란츠 카프카 | 문학동네 | 2005

<변신>은 세계문학사상 최고의 첫 문장을 가진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으로, 산업화 시대 인간 실존의 소외와 모순을 그린 소설입니다. 읽는 사람마다, 읽을 때마다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겹의 시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재해 보험국에서 일하던 카프카가 1912년에 발표한 이 소설은 발표된 지 10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소설 속 장면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로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 1

여러분은 <변신>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레고르 잠자는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출장 영업사원인 그는 자신의 고달픈 직업이 스트레스가 심하고 진실한 인간적 교류를 맺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악마여, 제발 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다오.”(p.9)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는데요. 여러분은 그레고르가 갑충으로 변신한 것이 누구의 의도라고 보시나요?

- 자신이 원해서 (더이상 버틸 수 없어 스스로 별레가 되기를 선택)
- 우연하게 (갑작스러운 병이나 운명처럼 피치 못하게 찾아온 일)
- 기타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철갑처럼 단단한 등껍질을 대고 누워 있었다. (...) 몸뚱이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애처롭게 버둥거리며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p.7)

그는 생각에 잠겼다. ‘아아, 세상에! 나는 어찌다 이런 고달픈 직업을 택했던 말인가. 허구한 날 여행만 다녀야 하다니. 회사에 앉아 실제의 업무를 보는 일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하다. 게다가 여행할 때의 이런저런 피곤한 일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기차를 제대로 갈아타기 위해 늘 신경을 써야 하는 일, 불규칙하고 형편없는 식사, 상대가 늘 바뀌어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만남과 결코 진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적 교류 등등. 악마여, 제발 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다오.’(p.8~9)

갑충으로 변해 출근하지 못한 그레고르는 회사에 몸이 아프다고 연락할까 궁리해보지만 사장이 어떤 이의도 묵살해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회사의 지배인이 그의 집에 직접 와서 그가 왜 출근하지 않는지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벽 너머로 지배인의 말을 듣던 그레고르는 “오늘 자기한테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언젠가 지배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그럴 가능성을 사실 부인할 수는 없었다.”(p.21)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지배인이 직접 온 것이다. 왜 유독 그레고르만이 조금만 직무에 태만해도 곧장 엄청난 의심을 사게 되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일까? 도대체 회사원들이 죄다 건달이기라도 하단 말인가? (...) 사환 아이를 보내 물어봐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 일이 정녕 그렇게 필요했다면 말이다. 굳이 이렇게 지배인이 직접 와야 했을까?(p.20)

그레고르는 오늘 자기한테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언젠가 지배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보았다. 그럴 가능성을 사실 부인할 수는 없었다.(p.21)

그레고르는 오 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자, 모두를 절망 속에 빠뜨린 그 불행을 식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릴 수 있도록 다른 동료들보다 몇 배의 열성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는 말단 직원에서 출장 영업사원으로 승진을 합니다. 당시 그가 집에 돌아와 돈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식구들은 모두 행복해서 입이 벌어졌다며,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 후로 “식구들은 그레고르가 벌어들인 돈을 감사하게 받았고” 그 또한 “그 돈을 기꺼이 내놓았지만 애뜻한 정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오가지 않았”(p.56)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집에 돌아와 그 돈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식구들은 모두 행복해서 입이 벌어졌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 나중에 그레고르는 온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후로 그런 시절은 다시는 오지 않았다. 적어도 그렇게 눈부신 모습으로는. 식구들이나 그레고르나 다들 익숙해져서 이젠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식구들은 그레고르가 벌어들인 돈을 감사하게 받았고 그는 그 돈을 기꺼이 내놓았지만 애뜻한 정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오가지 않았다.(p.56)

그레고르가 벌어들인 돈으로 삶을 지탱해오던 가족들은 그레고르가 갑충으로 변한 후 저마다 일을 시작합니다. 몸이 약한 어머니는 “고급 내의 바느질”을 시작했고, 어린 여동생은 “점원으로”(p.91) 취업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던 아버지는 “푸른색 제복을 입고”(p.84) 은행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레고르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지금 저기 서 있는 저런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 예전에 그레고르가 출장을 떠날 때면 늘 지친 모습으로 침대에 파묻혀 누워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맞는 걸까? (...) 지금 그 앞에 있는 아버지는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서 있는데다 은행의 사환들이나 입을 것 같은 금색 단추가 달린 뻗뻗한 푸른색 제복을 입고 있다. 뻗뻗하게 세운 상의의 칼라 위로는 두툼한 이중 턱이 푹 볼거져나와 있으며, 덩불처럼 생긴 눈썹 아래 위로는 검은 눈동자가 주의 깊고도 생기 있는 눈빛을 내뿜고 있었다.(p.83~84)

어머니는 불빛 아래로 몸을 깊이 숙인 채 양장점에 넘길 고급 내의를 바느질했고, 점원으로 취직한 여동생은 장차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것인 듯 저녁마다 속기와 불어를 공부했다.(p.91)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레고르는 어느 날 갑자기 갑충으로 변해 자기 방에만 머물게 됩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의 흉측한 모습에 거리를 두지만 여동생만이 그의 방을 청소해 주고 음식을 가져다줍니다. 시간이 흐르자 여동생 그레타는 무엇을 주면 그가 특히 기뻐할지 이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고, 방 청소도 아무렇게나 후딱 해치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레고르의 방 청소에 관한 자신만의 고유한 권한을 누가 침해하기라도 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대청소하자, 여동생은 “몸부림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p.96)습니다. 여러분은 여동생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전과 달리 새삼스럽게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실 온 가족이 신경과민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레고르의 방 청소에 관한 자신만의 고유한 권한을 누가 침해하기라도 할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았다. 한번은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대청소한 적이 있었는데, 물을 몇 양동이냐 쓰고 나서야 일을 마쳤다. 그러나 물기가 너무 많아 기분이 상한 그레고르는 소파 위에 벌렁 드러누운 채 씩씩한 마음으로 꿈쩍도 않고 있었다. 그 일로 인해 어머니는 툭툭히 곤욕을 치러야 했다. 저녁에 그레고르의 방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린 여동생이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며 거실로 달려갔던 것이다. 어머니가 양손을 쳐들고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여동생은 몸부림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다.(p.96)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의 방을 들여다본 파출부 할머니 긴 빗자루로 그레고르를 간질여 보다 그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부모에게 그것이 뺏었다고, 저기 자빠져서 완전히 뺏어버렸다고 외칩니다.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듯 할멈 쪽을 쳐다보며 “죽었다고요?”(p.118)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자아, 이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p.120)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마침 손에 긴 빗자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문가에 선 채 그것으로 그레고르를 간질여보았다. (...) 곧 사태의 진상을 알게 된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신도 모르게 휘파람을 휘 불었다. (...)

“이리 좀 와보세요. 그것이 뺏었어요. 저기 자빠져서 완전히 뺏어버렸어요!”  
 “죽었다고요?”

잠자 부인은 의심스러운 듯 할멈 쪽을 쳐다보았다. 물론 그녀가 직접 확인해볼 수도 있었고, 또 굳이 그러지 않아도 척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p.117~118)

“자아, 이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

잠자 씨가 성호를 긋자 세 여자도 따라 했다.(p.120)

갑충으로 변한 그레고르를 본 가족들은 기절하거나 그를 힘껏 견어차고, 자제심을 잃은 채 문을 광 닫아버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후 가족들은 생계를 이어갈 방법을 마련하고 그에게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사과를 던지고, 여동생은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레고르가 죽자 가족들은 “전차를 타고 교외로 나가” “따스한 햇살” 속에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p.126)를 나누는데요. 여러분은 가족들의 이러한 변화(변신)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아버지는 그에게 사과로 폭탄 세례를 퍼붓기로 결심한 모양이었다. (...) 그것은 그레고르의 등을 제대로 맞추어 깊숙이 들어가 박혔다. (...) 모든 감각들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며 그는 그만 그대로 쪽 뺏어버리고 말았다.(p.86)

“내쫓아야 해요!” 여동생이 소리쳤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것이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 저것이 정말 오빠라면 우리가 자기와 같은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쯤은 벌써 알아차리고 제 발로 나가주었을 거예요.”(p.114)

그들은 전차를 타고 교외로 나갔다. 그들이 탄 차량에는 오붓하게 그들 가족뿐이었는데, 따스한 햇살이 차 안 곳곳을 밝게 비추어주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안히 등을 기대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잘 생각해보니 전망이 그리 어두운 것도 아니었다. (p.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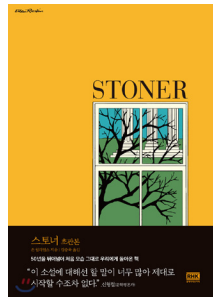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스토너

존 윌리엄스 | 알에이치코리아 | 2020

50여 년 전, 이 책의 초판은 출간 1년 만에 절판되었지만 2010년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재출간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두고 평론가 모리스 디스타인은 “당신이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최고의 소설”이라 극찬했으며, 영국의 유명 작가 닉 혼비, 이언 매규언, 줄리언 반스는 물론 수많은 국

내 명사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책의 표지는 초판본으로 주인공 스토너가 평생을 보낸 대학에 있는, 화재로 모든 게 스러지고 기둥만 남은 어느 건물 그림입니다. 폐허가 된 자리에서도 기둥만은 불쑥 솟아 괴상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스토너가 받아들인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1

여러분은 <스토너>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스토너와 이디스는 무지한 상태로 결혼했고, 그 무지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일이 끝난 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그는 갑자기 욕실로 향한 그녀가 고통스럽게 토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돌아온 그녀는 샴페인을 한 잔만 마실 걸 그랬다며 이불을 끌어 올려 덮고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들의 신혼여행도 실패로 끝났고,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 실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p.95)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들의 신혼여행도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를 때까지 이 실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p.95)

일이 끝난 뒤 그는 그녀 옆에 누워 사랑이 담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제 그녀는 눈을 뜨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눈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갑자기 그녀가 이불을 획 젓히더니 재빨리 욕실로 향했다. 욕실에 불이 켜지고, 그녀가 큰 소리로 고통스럽게 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p.101)

주인공 스토너는 자신의 집 서재에서 딸 그레이스와 조용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스토너는 아이의 모습을 놀라움과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스토너와 그레이스가 서재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정신없이 웃고 있을 때 아내 이디스가 갑자기 들어와 "아버지 일하는 중이니깐 방해하면 안 돼."(p.169)라고 이야기하며 그레이스를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 뒤로 엄마의 통제 속에 지내던 그레이스는 살짝 똥해지거나 히스테리에 가까울 만큼 활기를 띠는 양극단을 오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디스는 "내가 그레이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요. (...) 난 그 아이를 사랑해요. 내 딸이니깐요."(p.175)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디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좀 너그러워져요. 아이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오." 이디스는 받침접시에 담배를 비벼꼈다. "그레이스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요. 친구도 있고, 열심히 몰두할 일도 있으니까요. 당신이야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했겠지만……. 요새 아이가 훨씬 더 외향적으로 변했다는 건 당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소리 내서 웃기도 한다고요. 옛날에는 절대 안 웃었잖아요. 거의 한 번도." 윌리엄은 놀란 표정으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거로군."(p.174)

스토너와 드리스콜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자 스토너의 친구인 확장 핀치는 스토너를 부릅니다. 핀치는 “이론적으로는, 누구든 자네가 원하는 사람과 잘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스토너와 드리스콜의 관계가 두 사람의 직업과 학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핀치는 “젠장, 자네 인생은 자네 것이 아니야.”(p.289)라고 말하자 스토너는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핀치가 조심스레 접고 있던 종이를 갑자기 마구 구기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론적으로야 자네 인생은 자네 것일세. 이론적으로는, 누구든 자네가 원하는 사람과 잘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지. 그것이 강의에 지장을 주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네. 하지만 말이야, 젠장, 자네 인생은 자네 것이 아니야. 자네 인생은… 아, 빌어먹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스토너는 미소를 지었다. “아는 것 같군.”(p.289)

영문학 교수인 스토너는 시간 강사인 캐서린을 세미나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스토너는 타인에게 진정한 친밀감이나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껴본 적이 없이 살아 왔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과 공부는 마치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서로를 강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별을 선택한 스토너는 그녀와 함께 떠난다면 "우리 둘 다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p.300)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토너의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고도 함께 있는 법을 터득했으며, 편안히 쉬는 데에 익숙해졌다. 스토너는 캐서린의 집에 책들을 가져다 놓았다. 나중에는 책꽂이를 새로 들여놓아야 할 정도였다. 그녀와 함께 나날을 보내면서 스토너는 거의 핑개치다 시피 했던 공부를 자신도 모르게 다시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캐서린도 자신의 논문이 될 책을 계속 썼다.(p276)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스토너는 자신에게 설명하듯이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했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요. 내가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일이고, 당신은…… 당신도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겠지. 우리 둘 다 지금과는 다른 사람, 우리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될 거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야."(p.300)

심사위원 3명중 하나였던 스토너는 지도학생인 찰스워커가 “교육자가 되는 것은 재앙이야.”(p.227)라며 불합격시킵니다. 이에 지도교수인 로맥스는 찰스워커를 합격시키라며 스토너를 협박하지만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로맥스는 영문과 학장이 되고, 스토너는 초보 강사에게나 어울릴 법한 시간표를 받습니다. 그는 이런 시간표에 대해 전혀 항의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강의를 해나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강의들 중에 그가 특별히 흥미를 지닌 것이 두 개 있었고, 앞으로 그 강의를 다시 맡으려면 한참 시간이 흘러야 할 것 같아서, “그 두 개의 강의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결심”(p.243)합니다. 여러분은 스토너의 이런 태도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열흘 뒤 홀리스 로맥스가 영문과 학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서 2주일 뒤 다음 해의 강의 시간표가 영문과 교수들에게 배포되었다. 스토너는 두 학기 모두 1학년 작문수업 셋과 2학년 개론 수업하나가 자신에게 배정된 것을 보고 그리 놀라지 않았다. 상급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세 문학 강독’과 대학원 세미나는 시간표에서 빠져 있었다. 스토너는 이것이 초보강사에게나 어울릴 법한 시간표임을 깨달았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나빴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아주 묘한 시간에 강의가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와 강의 사이의 간격도 길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시간표에 대해 전혀 항의하지 않고,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강의를 해나가기로 마음을 정했다.(p.240~241)

## 7

스토너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남들 눈에 틀림없이 실패작으로 보일 자신의 삶을 관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면서 우정을 원했고, 사랑을 원했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또 뭐가 있지?”라고 하는 질문을 이어가다가 “넌 무엇을 기대했나?”라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 후에도 그는 “넌 무엇을 기대했나?”(p.385)라는 생각을 하고, “넌 무엇을 기대했나?”(p.387)라고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스토너가 자신에게 여러 번 던지는 이 질문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는 생각했다. 또 뭐가 있지?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눈을 뜨니 사방이 어두웠다. 그는 창밖의 하늘을 보았다.(p.385)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실패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하잘것없어 보였다.(p.387)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달과 6펜스

서머싯 몸 | 민음사 | 2000

예술에 사로잡힌 한 영혼의 광기 어린 예술  
편력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해서 쓴 작품입  
니다. '달'은 상상의 세계나 광적인 열정을 상  
징합니다. '6펜스'는 돈과 물질의 세계, 사람들  
문명과 인습에 묶어두는 타성적 욕망을 암시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탈출과 해방의 욕망이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는 천재의 개성과 치열  
한 삶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1872년 18  
달과 6펜스  
The Moon and Sixpence  
1891년 41세

저자 윌리엄 서머싯 몸은 1874년 프랑스 파리 주재 영국 대사  
관 법률 고문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런던의 성 토머스  
병원 부속 의과 대학에 입학했지만, 의사보다 작가가 될 꿈을 품  
고 1897년 첫 소설 <램버스의 라이저>를 발표하며 성공을 거듭  
니다. 이후 의사 직을 포기하고 소설과 희곡 집필에 몰두했으며,  
1919년 화가 폴 고갱의 전기에서 모티프를 얻어 쓴 소설 <달과  
6펜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크게 주목받습니다. <인간  
의 굴레에서>, <케이크와 맥주>, <작가 수첩> 등 소설과 희곡,  
단편 선집, 에세이 등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1965년 프랑스 남부  
에서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1

여러분은 <달과 6펜스>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2

상황이 변하면 위대성에 대한 평가도 사뭇 달라지곤 합니다. 수상도 그 직을 떠나면 고작 잘난 척하는 말 재주꾼이었던 게 아닌가 여겨질 때가 많고, 장군도 부하를 잃으면 저잣거리의 보잘것없는 애기의 주인공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작가는 “거기에 비하면 찰스 스트릭랜드의 위대성은 진짜였다.”(p.7)라고 하는데요. 소설 속 찰스 스트릭랜드는 2022년을 사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나요?

위대성이라 해서 때를 잘 만난 정치가나 성공한 군인을 수식하는, 그런 위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위대성은 그 사람의 지위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지 사람 자체가 가지는 특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황이 변하면 위대성에 대한 평가도 사뭇 달라지게 마련이다. 수상도 그 직을 떠나면 고작 잘난 척하는 말 재주꾼이었던 게 아닌가 여겨질 때가 많고, 장군도 부하를 잃으면 저잣거리의 보잘것없는 애기 주인공으로 떨어지고 만다. 거기에 비하면 찰스 스트릭랜드의 위대성은 진짜였다.(p.7)

## 3

찰스 스트릭랜드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직업과 가정을 버리고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화자는 스트릭랜드 부인의 부탁으로 그를 설득하기 위해 파리로 갑니다. 그는 스트릭랜드에게 모두가 선생님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찌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트릭랜드는 “나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오? 세상 사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도 전혀 불만이 없어요.”(p.76)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찰스 스트릭랜드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인을 버렸단 말입니까?」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소」 (...)

「아니 나이가 사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요」 (p.67)

하지만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정말 전혀 상관없는 사내가 여기 있었다. 그러니 인습 따위에 붙잡혀 있을 사내가 아니었다.

(...)

「이것 보세요. 모두가 선생님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군. 나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오? 세상 사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도 전혀 불만이 없어요」 (p.76)

## 4

어느 날 스트로브는 아내 블란치에게 스트릭랜드가 병이 났다며 집으로 데려왔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블란치는 싫다면서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답합니다. 스트로브는 몇 가지 이유를 대며 “병원? 그 사람은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돌봐줘야 해요.”(p.129)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스트로브가 꺼낸 이유 중 어느 부분에 더 공감 하셨나요?

- 「개처럼 죽어가도록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게 몰인정할 수는 없지」 (p.129)
- 「천재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해 주고 참을성 있게 대해 주어야 해」 (p.131)
- 「그 사람이 천재라서만은 아냐. 그 사람도 사람 아닌가. 병들고 가난한 사람 아닌가 말이야」 (p.131)
-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야. 그 사람을 그런 비참한 골방에 팽개쳐 놓을 수는 없잖나」 (p.131)

## 5

아픈 스트릭랜드를 돌봐주던 스트로브의 아내 블란치는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블란치는 스트로브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스트릭랜드 집으로 함께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스트로브는 블란치를 붙잡았지만 그녀가 뜻을 굽히지 않자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이게 내가 가진 돈인데 받은 당신에게 주고 싶소”(p.150)라며 돈까지 주는데요. 여러분은 둘의 대화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도대체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저 사람 사는 데가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해? 당신은 그런 데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정말 못 살 데야」  
「제가 괜찮다는 데 당신이 왜 그래요」 (p.146)

「내가 나가겠소」

「당신이요?」

그녀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다.

「당신이 그 끔찍하고 더러운 다락에서 살 걸 생각하니 견딜 수 없소.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집은 당신 집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살면 불편은 없을 거요. 적어도 최악의 고생은 면하겠지」

그는 돈을 넣어둔 서랍으로 가서 지폐를 몇 장 꺼냈다.

「이게 내가 가진 돈인데 받은 당신에게 주고 싶소」

그는 지폐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스트릭랜드와 그의 아내는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었다.(p.150)

닥터 쿠틀라는 문둥병에 걸린 스트릭랜드의 집에 들르며 그와 가족의 안부를 살핍니다. 그러다가 그는 스트릭랜드가 남긴 마지막 작품을 보고 그의 천재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작품은 스트릭랜드의 유연으로 모두 불태워집니다. 닥터 쿠틀라는 화자에게 스트릭랜드가 “하나의 세계를 창조했고, 그런 다음 그걸 파괴해 버린 거죠”(p.299)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릭랜드가 자신의 걸작을 파괴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그림들엔 이상하게도 그를 감동시키는 무엇이 있었다. 방바닥에서 천정에 이르기까지 사방의 벽이 기이하고 정교하게 구성된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뭐라 형용할 수 없이 기이하고 신비로웠다. 그는 숨이 막혔다.(p.293)

「맙소사, 이건 천재다」

이 말이 입에서 절로 튀어나왔다.(p.294)

집은 눈 깜짝할 사이에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더랍니다. 위대한 걸작이 그렇게 해서 사라져버린 거죠.

「스트릭랜드는 본인도 그게 걸작인 줄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바랐던 걸 이룬 셈이죠. 자기 삶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의 세계를 창조했고, 그것을 바라보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다음 자부심과 함께 경멸감을 느끼면서 그걸 파괴해 버린 거죠」(p.299)

작품해설에서는 달은 흔히 상상의 세계나 광적인 열정을 상징해 왔고, 6펜스란 영국에서 가장 낮은 단위로 유통되었던 은화의 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에 더 끌리나요?

- 달 (영혼과 관능의 세계, 또는 본원적 감성의 삶에 대한 지향)
- 6펜스 (돈과 물질의 세계, 그리고 천박한 세속적 가치들)

그는 결국 무엇을 얻었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달과 6펜스>라는 이 소설에 암시되어 있다. <달>과 <6펜스>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세계를 가리킨다.

(…)

달빛은 영혼을 설레게 하며 삶의 비밀에 이르는 신비로운 통로로 사람을 유혹한다. 마음 깊은 곳의 어두운 욕망을 건드려 견잡을 수 없는 충동에 빠지게도 한다. 그래서 달은 흔히 상상의 세계나 광적인 열정을 상징해 왔다. <6펜스>란 영국에서 가장 낮은 단위로 유통되었던 은화의 값이다. 이 은화의 빛은 둔중하며 감촉은 차갑고 단단하다. 그 가치는 하찮다. 달이 영혼과 관능의 세계, 또는 본원적 감성의 삶에 대한 지향을 암시한다면, 6펜스는 돈과 물질의 세계, 그리고 천박한 세속적 가치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사람을 문명과 연습에 묶어두는 견고한 타성적 욕망을 암시한다.(p.309~310)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 | 문학동네 | 2003

<자기 앞의 생>은 로맹 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던 소설로 1975년 공쿠르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책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7층에 살고 있는 유대인 로자 아줌마와 아랍인 꼬마 모모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모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아이들을 키우는 로자 아주머니 손에서 자란 10살 소년입니다. 에밀 아자르는 어린 모모의 눈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인종과 나이, 성별을 초월하여 서로를 돌보는 삶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자기 앞의 생  
La Vie devant soi



1

여러분은 <자기 앞의 생>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 2

주인공 모모는 개 파는 가게에서 푸들 한 마리를 훔쳐 왔습니다. 모모는 푸들의 이름을 '쉬페르'(최고)로 지어주고, 정성껏 돌봅니다. 어느 날 모모는 돈이 많아 보이는 부인에게 오백 프랑을 받고 쉬페르를 팔고는 그 돈을 모두 하수구에 처넣어 버립니다. 모모는 쉬페르를 너무 사랑해서 "너석에게 멋진 삶을 선물해 주고 싶어졌다"(p.28)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모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셨나요?

너석을 산책시킬 때면 내가 뭐라도 된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너석에게는 내가 세상의 전부였으니까. 나는 너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에게 줘버리기까지 했다. 그때 내 나이 벌써 아홉 살쯤이었는데, 그 나이면 행복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색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법이다. 뭐 누구를 모욕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로자 아줌마의 집은 아무리 익숙해진다 해도 역시 우울한 곳이었다. 그래서 쉬페르가 감정적으로 내게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자, 나는 너석에게 멋진 삶을 선물해 주고 싶어졌다.(p.28)

### 3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모모는 나이답지 않게 매우 성숙하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르튀르'라는 이름을 붙인 낡은 우산을 꺼안고 자거나 잘 때 '암사자'가 와서 자기를 훑아준다는 공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모모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준비를 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가만히 있으면 암사자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사자는 살며시 내 곁에 누워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훑아주었다.(p.80~81)

그 당시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해입힌 내 우산, 아르튀르였다. (...)나는 밤이면 아르튀르를 꼭 끌어안고 잤고, 아침이면 로자 아줌마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보곤 했다.(p.87~89)

## 4

어느 날, 모모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는 심장이 좋지 않아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위해 신께 기도해 주길 부탁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로자 아줌마는 모세가 그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모모의 아랍인 아버지는 “저는 유태 아들을 둘 수는 없습니다”(p.221)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그의 태도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매우 강한 충격에 이끌리듯 벌떡 일어섰다.

“모세는 유태인 이름입니다. 확신하건대, 부인, 모세는 회교도 이름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집안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저는 모하메드를 맡겼습니다. 부인, 모세란 아이를 맡긴 적은 없습니다. 저는 유태 아들을 둘 수는 없습니다. 부인, 제 건강이 그것을 허락지 못합니다.”

모세와 나는 서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눌러 참았다.(p.221)

## 5

카츠 의사 선생님과 모모는 '정상성'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카츠 선생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모모가 영리하고 예민한 아이라 훌륭한 작가나 시인이 될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모는 "나는 절대 정상은 안 될 거예요, 선생님. 정상이라는 작자들은 모두 비열한 놈들뿐인걸요"(p.268)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모모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 그래. 너는 아주 영리하고 예민한 아이야.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해야겠지. 종종 로자 부인에게 말했지만, 너는 정말 남다른 사람이 될 거다. 훌륭한 시인이거나 작가나 아니면……"

그는 또 한숨이었다.

"반항아가 되거나…… 하지만 안심해라. 네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은 결코 아니니까."

"나는 절대로 정상은 안 될 거예요. 선생님. 정상이라는 작자들은 모두 비열한 놈들뿐인걸요."

"정상인을 말하는 거다."

"나는 정상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선생님……"(p.272)

6

몸이 안 좋아진 로자 아줌마는 병원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모모 아줌마가 병원에서 죽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뒤에 로자 아줌마가 준비해 둔 '유태인 동굴'로 데려갑니다. 모모는 죽은 로자 아줌마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은 모모의 이런 행동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그녀는 이제 숨을 쉬지 않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숨을 쉬지 않아도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나는 그녀 곁에 퍼놓은 매트에 내 우산 아르튀르와 함께 누웠다. 그리고 아주 죽어버리도록 더 아프려고 애썼다.(p.305)

## 7

모모는 하밀 할아버지에게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밀 할아버지는 그렇다고 답했고 모모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시간이 흘러 로자 아주머니가 사망한 뒤, 모모는 하밀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모모는 “하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p.307)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모의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p.13)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p.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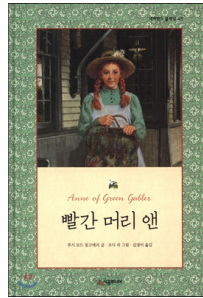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빨간 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글, 조디 리 그림 | 시공주니어 | 2019

캐나다의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1908년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캐릭터 하나로 평생 소설을 썼으며 앤의 유년기와 중년기, 노년기를 다룬 시리즈가 계속 출판되었습니다.

열한 살짜리 여자아이 앤은 에이번리 마을의 초록 지붕집에 실수로 입양되어 마릴라와 매슈 남매의 가족이 됩니다. 무엇이든 상상하는 엉뚱한 매력의 앤, 에이번리의 아름다운 풍경, 그녀를 둘러싼 초록 지붕의 남매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늘 꿈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주어진 삶에 충실한 앤의 모습이 백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받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여러분은 <빨간 머리 앤>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 2

커스버트 남매는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슈가 역에서 데려온 아이는 여자아이였고, 마릴라는 몹시 실망합니다. 그날 밤 마릴라는 앤에게 잠옷이 있냐고 묻자 앤은 고아원에는 좋은 잠옷은 없지만 어떤 잠옷을 입든 “누구나 똑같이 꿈을 꿀 수 있죠. 그게 바로 제 위안이에요”(p.45)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고아원에는 뭐가 남아돌 만큼 넉넉한 적이 없어 항상 모든 것이 모자라거든요. 적어도 우리 고아원처럼 가난한 고아원은 그래요. 저는 꼭 끼는 잠옷이 싫어요. 하지만 그런 옷을 입든, 목 주위에 레이스가 달리고 옷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아름다운 잠옷을 입든 누구나 똑같이 꿈을 꿀 수 있죠. 그게 바로 제 위안이에요.(p.45)

앤은 부모를 잃은 뒤 가난한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토머스 아주머니가 자신을 돌보았다고 마릴라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토마스 아주머니의 말을 안 들 때마다 아주머니가 앤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그런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야 하냐고”(p.61) 묻습니다. 여러분은 앤의 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태어난지 석 달만에 엄마는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엄마를 부르던 생각이 날 만큼이라도 오래 사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빠도 나홀 뒤에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아가 되었고, 토머스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 결국 토머스 아주머니가 저를 키우겠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한데다 남편이 술주정뱅이였지만요. 아주머니는 손수 저를 키우셨대요.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할 때마다 토머스 아주머니는 책망하듯이 ‘널 손수 키웠는데, 어떻게 나쁜 아이가 될 수 있느냐?’고 하셨거든요.(p.60-61)

## 4

빨간 머리 앤은 어린 시절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빨간 머리라는 사실을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를 가진 다이애나를 부러워하며, 홍당무라고 자신을 놀린 길버트를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빨간색이죠. 아저씨는 이제 제가 완전히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완전히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주근깨나 초록색 눈이나 말라깽이라는 점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빨간 머리가 없는 건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최선을 다하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 머리카락은 갈까마귀 날개처럼 우아한 까만색이야.’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제 머리카락이 새빨강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가슴이 찢어지죠. 평생 동안 짙어질 슬픔일 거예요.(p.34)

앤이 마릴라의 브로치를 만진 뒤, 브로치가 없어지자 마릴라는 앤을 의심합니다. 앤은 자신은 죄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릴라는 앤의 말을 믿지 않고, 앤을 방에 가두기로 합니다. 앤은 기대하던 소풍을 가고 싶어서 고백하기로 결심했다며 거짓 자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마릴라는 브로치를 들고 동쪽 방으로 올라갔다. 앤은 울다 지쳐서 창가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마릴라가 엄숙하게 말했다.

“앤 설리, 방금 내 검정 레이스 솔에 걸려 있는 브로치를 찾았다. 오늘 아침에 횡설수설하던 얘기는 도대체 뭐냐?”

앤은 지친 듯이 대꾸했다.

“저... 제가 사실대로 고백할 때까지 방에 가둬 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소풍을 가고 싶어서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지난밤에 침대에 누워서 될 수 있는 한 재미있게 고백하자고 생각했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연습했지요. 하지만 아주머님 소풍을 보내 주지 않으셨으니 모두 헛일이 되고 말았죠.”

마릴라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한편으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p.142~143)

마릴라는 사랑을 쉽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법을 잘 몰라서 앤에 대한 애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릴라는 앤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데요. 마릴라는 “인간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최악”(p.361)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마릴라의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보셨나요?

마릴라는 희미한 난로 불빛 아래서 부드럽게 앤을 쳐다보았다. 조금이라도 밝은 곳에서는 결코 그러지를 못했다. 마릴라는 사랑을 쉽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잿빛 눈을 가진 이 가냘픈 아이를 더 깊고 강한 애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사실 마릴라는 앤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릴라는 자기가 앤을 좋아하는 것처럼 인간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감정에 대한 참회로, 마치 앤이 자기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앤에게 더 엄하고 더 쌀쌀맞게 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p.361)

앤은 열심히 공부해서 에이번리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드먼드 대학 문학과정  
에 진학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매슈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마  
릴라 아주머니는 초록 지붕 집을 팔려고 합니다. 결국 앤은 장학금과 진학을 포기하고  
초록 지붕 집에서 마릴라 함께 지내며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바꾸는데요, 여러분은 이  
런 앤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앤, 달리 방법이 없잖니. 나도 이리저리 생각이 많았단다. 눈이라도 건강하면  
쓸 많나 일꾼을 고용해서 농장일이고 살림이고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겠지. 하  
지만 그럴 수가 없잖니.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집을 건사하기  
어려워질 게야. 휴, 나도 이집을 팔게 될 날이 오리라곤 생각도 못했단다. (...) 난  
여기서 혼자 지낼 수가 없어. 힘들고 외로워서 고통스러울 거야. 눈도 보이지 않  
게 될 테고, 결국 그렇게 될게야.”(p.515~516)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1

여러분은 <허삼관매혈기>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 2

허삼관은 식구들이 57일간 옥수수죽만 먹자 자신의 피를 판다. 그는 피를 판 돈으로 자신의 아들이 아닌 일락이만 빼놓고 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이 일로 마음이 상한 일락이는 “그래, 난 당신 친아들이 아니야, 당신 역시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구.”라고 말하며 자신의 친아버지인 하소용의 집으로 가지만 그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락이를 찾으려간 허삼관은 울고 있는 일락이를 업고 “널 11년이나 키워줬는데, 난 고작 계부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p.191)고 말하며 국수집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자, 업혀라.”

허삼관은 일락이를 업고 동쪽을 향해 걸어갔다. 골목을 지나 큰길로 접어들었는데, 그 길은 바로 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 옆으로 난 길이였다. 걸어가는 중에 도 허삼관의 입은 일락이에게 설 새 없이 욕을 퍼부었다.

“이 쪼그만 자식, 개 같은 자식, 밥통 같은 자식……. 오늘 완전히 널 미쳐 죽게 만들어놓고……. 가고 싶으면 가, 이 자식아, 사람들이 보면 내가 널 업신여기고, 만날 욕하고, 두들겨 패고 그런 줄 알 거 아니냐. 널 십일 년이나 키워줬는데, 난 고작 계부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개 같은 놈의 하소용은 단돈 일 원도 안들이고 네 친아버지인데 말이다. 나만큼 재수 옴 붙은 놈도 없을 거다. 내세에는 죽어도 네 아버 노릇은 안 하련다. 나중에는 네가 내 계부 노릇 좀 해라. 너 꼭 기다려라. 내세에는 내가 널 죽을 때까지 고생시킬 테니…….”

승리반점의 환한 불빛이 보이자 일락이가 허삼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우리 지금 국수 먹으러 가는 거예요?”

허삼관은 문득 욕을 멈추고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p.191~192)

### 3

결혼 후, 허옥란은 허삼관에게 가사를 분담하자고 합니다. 또 월경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허삼관이 공장에서 받아오는 장갑을 7년 동안 모아 옷을 해입는가 하면 가뭄이 덮쳤던 시기에는 10년간 모았던 쌀로 기근의 시기를 무사히 넘깁니다. 세 아들은 예순의 허삼관이 더 이상 피를 팔지 못하게 되었다며 성 안을 울면서 돌아다니자 아버지에게 핀잔을 줍니다. 이에 허옥란은 세 아들에게 샷대질을 하고 욕을 퍼부은 다음 허삼관에게 돼지간볶음과 황주를 마음껏 먹도록 사주는데요, 여러분은 소설 속 허삼관의 아내인 허옥란을 어떻게 보셨나요?

허옥란은 시집와 10년 동안 매일매일 쌀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매일 밥을 할 때마다 먼저 주방 쌀독에서 식구 수대로 쌀을 퍼 솥에 부은 다음 다시 한 줌 정도의 쌀을 침대 밑의 독에 부었는데요, 그녀는 "모두가 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지도 모르게 되고, 전부 적게 먹으면 아무도 적은 줄 모르거든요."(p.152)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녀는 허삼관에게 매일 두 숟가락을 덜 먹도록 했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로는 그들에게조차 두 숟가락을 적게 먹도록 시켰다. 물론 자기도 매일 두 숟가락 이상을 덜 먹고는 했다. 이렇게 절약해서 남은 쌀을 침대 밑의 작은 항아리에 모아 두었다. 원래는 작은 독 하나였으나, 가득 찬 후로 하나를 더 사 와서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그것 역시 가득 차서 또 하나를 사려 했으나, 허삼관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다.(...)

그리하여 침대 밑의 항아리가 가득 찬 후로 허옥란은 그 쌀을 주방에 있는 항아리에 부어 버리고, 침대에 앉아서 작은 독에 모았던 쌀이 몇 근이나 될지, 값은 또 얼마나 나갈지를 따져 그만큼의 돈을 잘 집어 상자 안에 넣어 두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사람이 한평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병이나 재난을 만나게 되는 법이랴구요. 재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유비무환이란 말도 있잖아요.(p.152~153)

## 5-1

허삼관의 나이 예순, 세 아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분가해 살아갑니다. 그는 더 이상 세 아들의 생활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허옥란과 함께 별어서, 둘이 쓰면 그만이었기에 이제는 돈이 부족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승리반점을 지나다 진하게 풍겨오는 돼지간볶음 냄새를 맡으며 피를 팔았던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피를 파는 거”(p.322)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허삼관의 이런 결심을 어떻게 보셨나요?

## 5-2

예순이 된 허삼관은 11년 만에 피를 팔러 갑니다. 그러나 늙었다는 이유로 매혈을 거부당하자,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매혈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피를 아무도 원하지 않다니……. 집에 무슨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나”(p.319)라며 울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자그마치 십일 년 만이었다. 게다가 오늘은 그야말로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피를 파는 거였다. ‘이전에 돼지간볶음에 황주를 곁들여 먹은 건 순전히 피를 팔았기 때문이지만, 오늘은 거꾸로 돼지간볶음에 황주를 곁들여 먹기 위해 피를 파는 거야.’(p.322~323)

그들과 같이 인도를 걷던 허삼관은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젊은 혈두의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다. 그는 젊은 혈두의 말을 떠올렸다. 자기처럼 늙은이의 피는 살아 있는 피보다 죽은 피가 많아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구에나 칠해야 한다고……. 집에 또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허삼관은 울면서 가슴을 열어젖힌 채 길을 걸었다.(p.325)

작가 위화는 1997년에 쓴 <허삼관매혈기>의 서문에서 “허삼관은 아주 재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당했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또 “생활의 편리함이나 불편 따위에는 개의치 않지만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성을 잃고 만다.” 이어 “안타깝게도 허삼관은 일생 동안 평등을 추구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결국 그의 몸에서 자라는 눈썹과 좃 털 사이의 불평등이었다”(p.9~10)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작가의 이런 설명을 어떻게 보셨나요?

평등에 대한 또 다른 추구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장미도 모르고(단지 꽃이라는 사실만 알 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자기가 사는 작은 성 밖을 벗어나지 않아야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가 추구하는 평등이란 그의 이웃들,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는 아주 재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당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또 생활의 편리함이나 불편 따위에는 개의치 않지만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인내력을 잃고 만다.

그의 이름은 ‘허삼관’일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허삼관은 일생 동안 평등을 추구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결국 그의 몸에서 자라는 눈썹과 좃 털 사이의 불평등이었다.(p.9~10)

이 말을 들은 허삼관이 허옥란에게 근엄하게 한마디 했다.

“그런 걸 두고 좃 털이 눈썹보다 나기는 늦게 나도 자라기는 길게 자란다고 하는 거라구.”(p.331)

일락이의 친아버지인 하소용이 트럭에 치여 거의 죽게 되자 그의 부인은 진 선생을 찾아가습니다. 진 선생은 하소용의 영혼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일락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락이는 자신을 거부했던 하소용 가족의 부탁을 외면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허삼관은 양심을 강조하며 “하소용이가 지금 널 친아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구나. 그 사람이 널 친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네 친아비 노릇을 할 수가 없다.”(p.199) 라며 일락이를 설득합니다. 여러분은 허삼관의 이런 태도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일락아, 하소용이가 이전에 우리에게 몹쓸 짓을 한 건 다 지난 일이다. 그걸 마음속에 담아 두면 안 된다. 지금은 하소용의 생명이 위급하니, 목숨부터 구하고 보는 게다. 어쨌든 하소용도 사람이고, 사람 목숨은 다 소중하니 말이다. 게다가 네 친아버지인 것도 사실이니 네가 친아들 된 입장에서 지붕에 올라가 소리 몇 번 질러 줘라…….

일락아, 하소용이가 지금 널 친아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구나. 그 사람이 널 친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네 친아비 노릇을 할 수가 없단다…….

일락아, 오늘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둬라.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 난 나중에 네가 나에게 뭘 해 줄 거란 기대 안 한다. 다만 나중에 나한테, 내가 내 넷째 삼촌에게 느꼈던 감정만큼만 가져준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늙어서 죽을 때, 그저 내가 널 키운 걸 생각해서 가슴이 좀 북받치고, 눈물 몇 방울 흘려주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일락아, 엄마 따라서 가거라. 내 말 듣고 어서 가거라. 가서 하소용의 영혼을 불러 봐라. 일락아, 어서 가라니까.”(p.204~205)

문화대혁명 시기에 허삼관은 허옥란과 하소용 사이의 일을 주제로 비판투쟁대회를 엮는다. 그는 허옥란에게 세 아들 앞에서 이 일을 정확히 밝히라고 명령합니다. 허옥란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하소용과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허삼관은 눈물을 훔치며 자신과 임분방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세 아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이어 자신도 엄마와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며, "만약 엄마를 증오한다면, 나도 마땅히 예외가 될 수 없다"(p.237)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허삼관의 행동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오늘 우리 집에서도 비판투쟁대회를 열려고 한다. 누굴 비판하느냐? 바로 허옥란을 비판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저 사람을 허옥란이라고 불러야 한다. 엄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건 비판투쟁대회니까. 비판투쟁대회가 끝나야 다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p.229)

"허옥란과 하소용 사이의 일은 너희도 다 알고 있을 거다. 오늘 비판투쟁의 주제는 바로 그 일인데……."

"허옥란, 이 일에 대해 세 아들에게 정확히 밝히도록."(p.231)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겼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하라고 했어?"(p.233)

"나 역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 그 임분방이라는 여자하고, (...) 나하고 임분방은 딱 한번 뿐이었다. 너희 엄마하고 하소용도 마찬가지로.(...) 그러니 엄마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p.236~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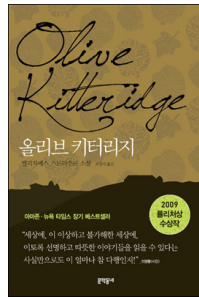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올리브 키터리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스 | 문학동네 | 2010

<올리브 키터리지>는 미국 메인 주의 작은 마을 크로스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열세 편의 단편에 담아낸 연작소설 형식의 작품입니다.

소설은 투명스럽고 무뚝뚝하며 차갑고 강한 한편 예리한 통찰력과 연민을 가진 여성 올리브를 축으로 이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올리브는 몇몇 단편에서는 극의 중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며, 몇몇 단편에서는 조연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인물에 의해 잠깐 언급되는 형태로 소설 전반에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올리브 키터리지>는 2009년 풀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1

여러분은 <올리브 키터리지>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부분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약국] 올리브가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헨리는 평소와 달리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내가 남편을 따라 교회를 가는게?” 그러자 올리브는 “그래, 젠장, 엄청 어려운 일이야!” 분노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올리브 없이 교회에 가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p.19)기 때문에 아내가 일요일 아침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헨리의 태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올리브 없이 교회에 가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 젠장, 엄청 어려운 일이야!” 올리브는 거의 침까지 뺨을 지경이었고, 분노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당신이 알거나 해? (...) 그런데 당신은……” 그녀가 식탁 의자 등받이를 움켜잡자, 아직 간밤에 헝클어진 채 그대로인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눈을 덮었다. “고명하신 우리 헨리 키터리지 집사님, 당신은, 고작 다른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날더러 일요일 아침을 포기하고 교회에 가서 궁둥이 붙이고 앉아 있으라는 거잖아!” 그녀는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나는 그게 지긋지긋하다는 거고.”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죽도록 지켜워.”

질은 어둠이 마음속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의 영혼은 질은 어둠 속에서 숨이 막혔다.(p.19~20)

[약국] 수학 교사인 올리브와 약국을 운영하는 헨리는 사춘기 아들을 둔 부부입니다. 헨리는 약국이 조용하고 원활히 돌아가는 건강한 자율신경계 같다고 생각하고 약국에 있는 동안은 순조로운 나날을 보내는 반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긴장감을 느끼는데요. 저녁을 차리던 올리브가 "나는 종일 요리하고 청소하고 식구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소리치자 헨리는 아들 크리스토퍼에게 "네가 집안일을 좀 더 거들어야 할 것 같다."(p.27)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녁이면 아드레날린이 샘솟으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종일 요리하고 청소하고 식구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올리브가 비프스튜 한 그릇을 헨리 앞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다들 목을 빼고 내가 뭘 해주기만을 기다리잖아." 경계경보에 팔뚝의 살갗이 따끔거렸다.

"네가 집안일을 좀 더 거들어야 할 것 같다." 헨리가 크리스토퍼에게 말했다.

"당신이 뭔데 애한테 이래라저래라야? 애가 사회 시간에 어떤 일을 겪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올리브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동안 크리스토퍼는 말없이 얼굴에 고소하다는 듯한 미소를 띠었다.(p.27)

[작은 기쁨] 올리브의 아들 크리스토퍼 키터리지는 외지인 여성 수잔과 결혼합니다. 그녀는 아들이 외로울까 싶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결혼에도 수잔이 있어 기쁜 마음이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리브는 생이 '큰 기쁨'과 '작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달려있고, 큰 기쁨에는 위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해류가 있으므로 작은 기쁨도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수잔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은 올리브는 머느리의 스웨터의 안쪽에 매직으로 낙서를 하고, 속옷을 가방에 챙기고, 그녀의 로퍼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하는 것"(p.133)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크리스토퍼가 코피를 흘렸을 때 아이가 어떤 물골이었는지 그녀가 아는가? 창백하고 다소 땅딸막한 아이였을 때 철자 시험을 보기가 겁나서 피부에 두드러기가 났던 그를 본 적이 있는가? 아니란 말이다. 수잔이 누군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두어 주 동안 그 사람과의 섹스가 어땠는지 아는 것일 뿐이다.(p.122)

“그이는 힘든 시간을 겪었어. 그리고 외동아들인 게 그이한테는 정말 죽음이었지.”(p.127)

“크리스토퍼는 자기가 뭐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여자와 살 필요는 없다. 뭐든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뭐든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p.133)

[툴립] 라킨 부부의 집에 찾아간 올리브는 아내 루이즈가 남편 로저와 위아래 층에 나눠 살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루이즈는 남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며 그가 누구한테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이이인실은' 심장이 한 시간에 두 번밖에 안 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루이즈와 언쟁 후 올리브가 집을 나설 때 '차디찬 사람'으로 불렸던 로저는 "인생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는 체념하고 그냥 지옥에서 지낸다는 뜻"(p.283)으로 한 손을 치켜들어 올리브에게 인사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대목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로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게 엄청난 차이지.”

올리브는 루이즈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늘 충분히 좋은 사람 같았는데.”(...)

“누구한테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루이즈가 말했다. “그 사람의 처세술이라고나 할까.” 루이즈가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지이이인실은.” 그녀가 과장되게 길게 발음하며 말했다. “심장이 한 시간에 두 번밖에 안 뛰는 사람이야.”(p.276)

올리브가 돌아보니 로저 라킨이 계단에 서 있었다. 그는 늙어 보였다. (...)

“죄송해요. 제가 흥분시켜서.”

그는 피로한 듯, 한 손만 치켜들었다. 루이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생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는 체념하고 그냥 지옥에 산다는 뜻이었다. 올리브는 서둘러 코트를 입으면서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다.(p.282~283)

[여행 바구니] 올리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성인이 되도록 정성 들여 키우고, 가까이 살도록 예쁜 집을 지어주고, 전문의로 개업하여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 고향에서 결혼식도 올려줍니다. 하지만 올리브의 아들은 나라 반대편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아내에게 버림받은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올리브는 어떤 여자도, 어떤 어머니도 “아들을 도둑맞으리라고는”(p.304) 예상하지 못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올리브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여자들은 말린 보니처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할 수도 있다. 또는 남편이 나이 들도록 곁에 있다 다 늦게 뇌졸중을 겪고 요양원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여생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되도록 정성 들여 키우고, 가까이 살도록 예쁜 집을 지어주고, 전문의로 개업하여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 결혼까지 시킨 아들이 나라 반대편으로 이사 가서, 짐승 같은 아내에게 버림받은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건 어느 여자도 예상하지 못할 일이다. 어떤 여자도, 어떤 어머니도 그런 일은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아들을 도둑맞으리라고는.(p.304)

[불안] 올리브의 아들 크리스는 이혼 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가 둘인 앤과 재혼을 하고 뉴욕으로 이사합니다. 그는 임신한 아내가 입덧으로 힘들어한다며 올리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버지가 각기 다른 세 명의 아이를 가진 며느리 앤을 보면서 올리브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은 점점 더 무서워지는 삶의 바다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사랑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어쩌면 그 말은 사실이었다.”(p.378)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올리브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때때로, 지금 같은 때, 올리브는 세상 모든 이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걸 얻기 위해 얼마나 분투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은 점점 더 무서워지는 삶의 바다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사랑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어쩌면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담배 피우는 앤을 바라보며 생각하건대, 그런 안정감을 갖는 데 아버지가 각기 다른 세 아이가 필요했다면 사랑으로는 불충분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크리스토퍼, 아들은 왜 그토록 무모하게 이런 일을 감행했는가, 그리고 나중에라도 왜 내게 말을 하지 않았던가? 거의 어두워진 가운데 올리브는 앤이 몸을 앞으로 숙여 담배를 아기 욕조에 살짝 담가 끄는 걸 보았다. 치익, 작은 소리가 났고, 앤은 담배를 닭장 올타리 너머로 던져 버렸다.(p.378~379)

[불안] 올리브는 아들 부부가 자신이 옷에 아이스크림을 흘린 채 앉아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둔 일에 화가 났지만 그 말은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아들 크리스토퍼는 엄마의 극도로 변덕스러운 기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거라며 뭔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답하는데요. 올리브는 크리스토퍼의 말에 수긍하지 않았고 아들은 엄마에게 “이젠 엄마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거”(p.414)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토퍼가 말에 공감하시나요?

-공감한다.

-공감하기 어렵다.

“(...) 하지만 엄마, 전 엄마의 그 극도로 변덕스러운 기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뭔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 대화를 하죠.”(p.411)

“이젠 엄마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에 대한 두려움? 누가 올리브를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려운 것은 바로 그녀였는데!(p.414)

[강] 칠순의 올리브는 혼자 산보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잭 케니슨을 만납니다. 배우자를 잃고 자식과도 소원한 관계였던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하는데요. 잭과의 만남을 통해 올리브는 연민과 질투, 증오, 사랑, 희망 등 여러 감정과 욕구가 아직 자신에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병원에서 잭은 올리브를 필요로 했고, 세상에는 올리브의 자리가 있었”(p.482)기에 그녀는 잭의 집으로 가서 그의 곁에 눕습니다. 여러분은 올리브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병원에서 잭은 올리브를 필요로 했고, 세상에는 올리브의 자리가 있었다. 이제 그의 푸른 눈이 올리브를 지켜보고 있었다. 조용히 그의 곁에 앉으면서, 잭의 눈빛에서 올리브는 두려움을, 손을 내미는 여린 마음을 보았다. 다른 모든 심장처럼 언젠가는 멎을 심장을, 그러나 그 ‘언젠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 햇살이 따스한 작은 방의 고요뿐. 그들은 이 자리에 있고, 그녀의 몸은, 높고 뚱뚱하고 살갗이 축 처진 몸은 그의 몸을 처절히 원했다. (...)

젊은 사람은 모르지. 이 남자의 곁에 누우며, 그의 손을, 팔을 어깨에 느끼며 올리브는 생각했다. 오,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모른다. 그들은 이 커다랗고 높고 주름진 몸뚱이들이 젊고 탱탱한 그들의 몸만큼이나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차례가 돌아올 타르트 접시처럼 사랑을 경솔하게 내던져서는 안되는 것을 모른다.(p.482~483)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샬린저 | 민음사 | 2001

1951년 발표된 제롬 데이비드 샬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은 미국을 대표하는 고전소설 중 하나입니다. 소설은 성적이 나빠 고등학교에서 쫓겨난 주인공 홀든 콜필드 (Holden Caulfield)가 뉴욕을 방황하던 3일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10대들의 언어를 그대로 옮긴 듯한 욕설과 비속어 속에 위트를 담은 문장으로 청소년들의 열광을 이끌어냈던 이 소설은 '콜필드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설의 인기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콜필드의 목소리가 기성세대의 위선을 지적하는 통명스러운 예민함으로 공감을 샀기 때문일 텐데요. 대화이기보다는 독백에 가까운 열일곱 살 소년의 혼란한 성장기를 통해 상처받은 청소년의 모습을 상상해봅시다.

The Catcher  
in the Rye  
J. D. Salinger

호밀밭의 파수꾼  
J. D. 샬린저

1

여러분은 <호밀밭의 파수꾼>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 2

이 소설의 제목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은 홀든이 스스로 인식한 자기 인생의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로버트 번스의 시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와 만난다면'에서 착안한 것인데요. 여러분은 홀든의 꿈과 이 책의 제목을 어떻게 보셨나요?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건 그거야. 바보 같겠지만 말이야.(p.230)

## 3

홀튼은 펜싱기구를 지하철에 두고 내린 뒤 1달러짜리 챙이 긴 빨간 사냥 모자를 구입합니다. 홀튼은 빨간 사냥 모자를 쓰고 학교를 나와 뉴욕으로 가기 위해 밤 기차를 탑니다. 그때 사냥 모자를 벗어 주머니 속에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택시에 탔을 때는 사냥 모자를 쓰고 있다가 뉴욕의 한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벗어버립니다. 이에 대해 홀튼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p.86)라고 했는데요. “빨간 사냥 모자”는 홀튼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린 에드몬트 호텔로 갔고, 난 체크인 수속을 했다. 택시에 탔을 때는 빨간 사냥 모자를 다시 쓰고 있었지만, 호텔에 들어 오자마자 바로 벗어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건 정말 모를 일이다. 그 호텔은 온갖 멍청이들과 변태 같은 인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 얼빠진 인간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p.86)

콜필드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후, 뉴욕에서 방황하다가 여동생 피비를 만나러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피비는 오빠를 보고 몹시 기뻐하지만, 그가 학교에서 또다시 퇴학 당한 것을 알고는 "이번에는 아빠가 오빠를 죽이고야 말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 다녔던 학교는 정말 최악이었으며, 친구를 가려 사귀는 학생들과 교장 선생님에게 아양 떠는 선생님을 욕합니다. 그러자 피비는 "오빠는 모든 일을 다 싫어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학교마다 싫다고 했잖아. 오빠가 싫어하는 건 백만 가지도 넘을 거야. 그렇지?"(p.225)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피비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빠가 싫어하니까. 학교마다 싫다고 했잖아. 오빠가 싫어하는 건 백만 가지도 넘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틀렸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물었다. 피비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보이니까 이러는 거지. 그럼 뭘 좋아하는지 한 가지 만 말해 봐」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 말이지? 좋아」(p.225)

##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 1

<호밀밭의 파수꾼>은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가운데 유일하게 표지가 텍스트로만 구성된 책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의 표지를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표지 디자인을 한다면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나요?



### 2

홀든은 무식했지만, 책은 정말 많이 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들은 그렇게까지 강한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책은,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작가와 친한 친구가 되어 언제라도 전화를 걸어, 자기가 받은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주는 책"(p.32)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황홀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인지 소개해주세요.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비소설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

생각의 좌표

사법부



#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간다

위화 | 문학동네 | 2012

중국어권 최고 작가 위화가 중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 정신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써낸 수필집으로, 원제는 '열 개 단어 속의 중국(十個詞彙中的中國)'입니다. 저자는 인민, 영수(領水), 독서, 글쓰기, 루쉰, 차이, 혁명, 풀뿌리, 산채(山寨), 홀유(忽悠) 등 열 개의 단어 속에 중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열 개의 단어를 열 쌍의 눈 삼아 열 개의 방향에서 중국을 응시하며 꿈이지 않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당대 중국의 삶의 모습을 열 개의 단어 속에 축약했습니다.



1

여러분은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영수] 작가의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꿈속에서 마오쩌둥을 만나는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수가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천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울음소리 속에서 작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대한 공간에서 한꺼번에 울부짖는 슬픔 가운데 작가가 느낀 것은 '유머'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작가는 두려움 속에서 친구의 의자에 기대어 "머리를 감춘 채"(p.70)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작가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나도 한때는 마오쩌둥이 항상 내 곁에 있다고 믿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 어른도 즐거워하실 것이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그 어른이 실망하실 거라고 믿었다. 나의 어린 시절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밤에 꿈속에서 마오쩌둥을 만나는 때였다.(p.62)

나는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극도로 두려웠던 나는 두 팔을 교차해 앞에 얹은 친구의 의자에 기대면 다음 머리를 두 팔 깊숙이 파묻었다. 이렇게 머리를 감춘 채 나는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는 울음소리 속에서 대담하게 웃고 있었다. 억제하려고 애쓸수록 웃음은 더 참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p.70)

[영수] 성이 '마오'인 노동조합 주석은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타도 대상이 됩니다. 그의 죄명은 세상에 두 명의 마오 주석이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 마오쩌둥의 시사와 어록은 중국인의 생활 속 어디든지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중국의 인터넷에서 '오늘 마오쩌둥이 다시 깨어난다면'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p.57)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겐 대한민국의 위인 중 다시 깨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분이 있나요?

얼마 전에 중국의 인터넷에서 '오늘 마오쩌둥이 다시 깨어난다면'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의 사람들은 그가 더이상 세계와 중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p.57)

마오쩌둥의 시사와 어록은 우리 생활 속 어디든지 들어와 있었다. (...) 이와 동시에 붉은 태양처럼 눈부신 황금빛의 마오쩌둥 두상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p.61)

[독서]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는 서표가 배부됩니다. 저자는 서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섰지만 실패합니다. 인심 좋은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새 책을 펼쳐 책을 사지 못한 사람들에게 잉크 냄새를 맡아보게 해주었는데요. 저자는 그때가 “나로서는 처음으로 새 책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었다”라면서 “연한 잉크 냄새가 신성한 향기처럼 느껴졌다”(p.100)라고 전합니다.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느낌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독초로 간주되던 금서들이 다시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톨스토이와 발자크, 디킨스 등의 문학작품이 처음으로 우리 작은 마을의 서점에 도착했다.(p.97)

우리는 너무나 오래 독서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학 명저의 참신한 표지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즐거웠다. 인심 좋은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새 책을 펼쳐 책을 사지 못한 사람들에게 코로 잉크 냄새를 맡아보게 해주었다. 나도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나로서는 처음으로 새 책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었다. 연한 잉크 냄새가 신성한 향기처럼 느껴졌다.(p.100)

[글쓰기] 위화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대자보' 쓰기와 오늘날의 인터넷 '블로그' 글 올리를 비교합니다. 그는 대자보가 혁명의 언어와 공허한 구호들로 가득 차 '천편일률'적이었지만 오늘날의 블로그는 '천태만상'이라고 전합니다. 블로그에는 자신을 과장하며 허풍을 떨기도 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밀을 폭로하며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역사적인 것 등 있어야 할 것이 다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의 대자보 쓰기와 오늘날의 블로그 쓰기가 갖는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p.115)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문화대혁명 시기에 사람들은 대자보를 쓰는 데 열을 올렸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열을 올리는 것보다 더 심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의 대자보는 천편일률이었고 기본적으로 '인민일보'의 글을 베끼는 데 불과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오늘날의 블로그는 천태만상이다. 자신을 과장하면서 허풍을 떠는 것도 있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도 있으며 비밀을 폭로하는 것도 있다. 격양된 목소리로 외치는 것도 있고 일부러 꾸며낸 것도 있다. 사회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으며 경제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있어야 할 것이 다 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의 대자보 쓰기와 오늘날의 블로그 쓰기가 갖는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p.115)

[루쉰] 위화는 문화혁명 시기에 '루쉰'이 더이상 한 작가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중국인이 다 아는 단어, 정치와 혁명의 의미를 내포한 중요한 단어였다고 말합니다. 그 시기에 시대의 흐름을 타는 정치적 어휘로 변질된 듯 느껴졌던 루쉰의 작품을 나중에 다시 읽게 된 저자는 날카로우면서도 맑고 밝은 글에 푹 빠집니다. 그 후로 저자는 작가를 싫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책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당장 내려놓는다며 "한 독자와 한 작가의 진정한 만남에는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p.183)라고 밝힙니다. 여러분은 저자의 생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서른여섯 살이 되던 해의 그 날 저녁 나에게 루쉰은 마침내 하나의 단어에서 하나의 작가로 돌아왔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그 긴 세월 동안 억지로 루쉰의 작품을 읽어야 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루쉰이 아이들의 작가가 아니라 성숙하고 민감한 독자들의 작가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때때로 한 독자와 한 작가의 진정한 만남에는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182~183)

[차이] 저자는 마오쩌둥 시대에 발전 과정과 그 속도가 완만했고 경제적 효율은 낮았지만, 사회적 차이가 끊임없이 축소되었다고 서술합니다. 반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제창한 후 30여 년간 국내 총생산액이 백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중국인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의 이미지에 빠져 아직도 1억 명의 사람들의 가난 속에 사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요. 위화는 "중국인의 진정한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빈곤과 기아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빈곤과 기아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p.215)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의 저자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2009년 2월, 내가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UBC에서 강연을 하며 2006년 중국에서 연간 수입이 800위안밖에 안 되는 빈민 인구가 1억 명에 달한다고 얘기하자 한 중국 유학생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돈은 행복을 가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중국 유학생의 한마디를 듣자 나는 몸이 떨려왔다. 이는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일부 중국인 집단이 내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의 이미지에 폭 빠져 아직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나는 중국인의 진정한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빈곤과 기아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빈곤과 기아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p.214~215)

[풀뿌리] 책은 중국의 풀뿌리들이 경제발전의 조류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일부 법률과 법규에 뚫린 구멍을 비집고 들어간 풀뿌리들이 창조해낸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저자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엄청난 담력"(p.271)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엄청난 담력을 갖고 있었고 뭔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일도 없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맨발인 사람은 신발 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고,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자면 프롤레타리아인 그들이 잃을 것은 죽쇄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였다.(p.271)

옌킨이는 중국의 화려한 변화 이면에 존재하는 엄청난 그늘을 걷어내고 조화 발전을 이루는데 '공공 지식인'의 역할과 존재 이유가 있다고 전합니다. 지식인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갖가지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질의를 던져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는 중국의 참모습을 담아내며 공공 지식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가 위화의 글쓰기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식인 집단으로 여겨지는 문인 계층, 즉 시인과 작가들이 "굳게 입을 다문 채 예술로서의 문학에만 침잠해 있는 태도"를 "지나친 개인화"(p.357)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옌킨이의 견해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문학이 모든 가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 숭고한 예술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사회적 산물이기도 한 문학이 예술인 것이지 문학의 생산자들이 예술인 것은 아니다. 최근 중국 작가들이 중국에서 누리는 사회적 지위와 세계 문단에서 받는 예우를 생각하면 저들의 문학은 사회를 향해 열려 있지 않고 지나치게 개인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p.357)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

하재영 | 라이프앤페이지 | 2020

“어디 살아요?”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지도 위의 좌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집’은 가족이기도 하고, 부동산이기도 하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등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쌓아 나갑니다.



이 책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는 저자가 유년시절을 보낸 대구의 적산가옥촌부터 수성구의 고급빌라와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던 원룸, 재개발이 빚겨간 금호동 다가구주택 등 삶의 기억들을 집을 통해 더듬습니다. 사적인 기억과 기록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 시기를 살아냈던 ‘우리’의 모습과 그 때, 그 시절의 ‘나의 집’을 필연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가족과 집, 여성과 집, 자아의 독립과 집, 계급과 집 등 다층적이고도 본질적인 집의 의미와 가치를 유연하게 탐험해 나가는 이 에세이를 통해 ‘집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오래도록 미루어 둔 질문을 마주해 봅시다.

1

여러분은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2

저자는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금호동 주택가에 살던 시절, 거기서 본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기 돈 쓰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집주인 아주머니, 골목길에서 여자의 몸을 훑어보는 러닝셔츠 차림의 50대 남자, 다른 사람의 차에 침을 뱉는 사람, 이틀에 한 번 꼴로 싸움을 하는 부부.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끝내 화만 남은 사람들을 보며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품위와 교양과 인격이 다른 환경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 태도였다.”(p.84)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작가의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품위는 인간에 대한 예의이자, 가진 것 없는 자가 자기혐오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방어진이었다. 나는 매사에 ‘내 돈을 써야 하는 일인가’만 생각하는 사람, 폭력적인 시선으로 남을 쳐다보는 사람, 남의 차에 가래침을 뱉는 사람, 욕설을 퍼붓고 악을 쓰는 사람이 결코 되고 싶지 않았다. 나뿐 아니라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다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품위와 교양과 인격이 다른 환경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 태도였다.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끝내 화만 남은 이들에게는 인간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했다.(p.83~84)

저자는 자신이 그곳에 살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배경은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p.181)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저자의 말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세상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사람조차 기어이 바닥을 드러내게 만드는 동네가 있었다. 그런 사람조차 기어이 바닥을 드러내게 만드는 동네가 있었다. (...)

나는 매사에 ‘내 돈을 써야 하는 일인가’만 생각하는 사람, 폭력적인 시선으로 남을 쳐다보는 사람, 남의 차에 가래침을 뱉는 사람, 욕설을 퍼붓고 악을 쓰는 사람이 결코 되고 싶지 않았다. 나쁜 아니라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다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품위와 교양과 인격이 다른 환경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 태도였다.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끝내 화만 남은 이들에게 인간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이웃들을 좋아할 수 없었지만 차마 미워할 수도 없었다.(p.84)

저자는 거주하기도 전부터 월세를 내야 했지만, 이사 후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 빈집을 고치는 것이 편할 것 같아 집을 먼저 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지 못한 세입자의 남동생이 수리 중인 집에 찾아왔고, 전화로 세입자와 언쟁을 벌입니다. 그러던 중 세입자는 저자가 월셋집을 자기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아등바등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사는 동안은 내 집이니까요, 월셋집이든 전셋집이든.”(p.102)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나요?

전 세입자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계약을 하기 전 행신동에 산다는 전 세입자의 여동생이 나를 찾아왔다. 언니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탓에 빈집에 계속 월세를 내고 있었다며, 실제 입주 날짜보다 계약 날짜를 앞당겨달라고 부탁했다. “언니가 아주 힘든 상황이라서 다음 달 집세를 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부탁을 들어준다면 나는 거주하기도 전부터 월세를 내야 했지만 승낙했다. 이사 후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 빈집을 고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였다. (p.96)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자기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아등바등 집을 고치고 있던 말이야? 월셋집을? 누구 좋으라고?”(p.101)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히스테릭한 웃음은 한참동안 이어졌다. 나는 웃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대답했다.

“사는 동안은 내 집이니까요, 월셋집이든 전셋집이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p.102)

저자는 “집에 대해 쓰는 것은 그 집에 다시 살아보는 일이었다”며, 공간이 아니라 ‘시간’ 혹은 ‘시절’로서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유년 시절을 보냈던 대구 북성로를 이야기하면서는 식민지 시대의 잔상이 남아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을 이야기했고, 수성구 명문 빌라에서는 사교육 문제를, 난곡에서는 재개발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방법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집에 거주해야 하는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각각의 집에 살 때 저자가 품고 있던 질문이 달랐기 때문이겠지요. ‘집’이라는 공간이 나의 생각, 혹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들이 거쳐 왔던 집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집은 우리에게 같은 장소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집이 쉼터이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집은 일터가 되었다. 보수도, 출퇴근도, 휴일도 없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가사 노동의 현장.(...) ‘집처럼 편하다’는 관용구대로 일과가 끝난 뒤 돌아오는 휴식의 공간을 집이라 한다면 엄마에게 집은 집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가족에게 집이 집이기 위해 엄마는 집을 비워선 안 되었다.(p.26)

공간을 소유하는 것은 자리를 점유하는 일이었다. ‘나는 누구인가?’하는 물음만큼이나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하는 물음이 나에게서 중요했다. 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집에서의 내 자리’를 인식하는 일이었다. 사회도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장소이므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의 위치도 자리의 문제였다. 이것은 하나의 화두가 되었다. 넓게는 이 세상에서, 좁게는 이 집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p.130)

##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 1

수성구 경동 국민 학교로 전학한 첫날, 같은 반 아이 유미는 “어디 살아?”라고 말을 건넵니다. 저자는 자연스럽게 집의 이름이 흘러나왔고, “이름이 있는 집, 아파트나 고급 빌라에 사는 사람들만이 묻고 답할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있었다.”(p.36)라고 당시를 회고하는데요. 여러분은 유년 시절 “어디 살아?”라는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아이였나요?

- 얼마짜리 집에서 살아?
- 어느 방향으로 가?(집에 같이 갈래?)

저자는 명문 빌라를 떠나 노후한 아파트에 전세를 살게 되면서, 또 더 이상 아파트에 살 수 없어 낡은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우리는 가난한가?”(p.57)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가난’은 무엇인가요? 주거격차와 재난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가난은 서로에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가난은 월세 30만 원짜리 자취방이지만 누군가에게 가난은 포클레인이 밀어버릴 쪽방이었다. 누군가에게 가난은 자기만의 방을 가지지 못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가난은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의 삶이었다. 가난을 가늠하는 일은 자신의 과거든 타인의 현재든 비교 대상이 필요했다. 마포의 3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을 다녀온 날, 나는 가난했다. 원룸에서 불과 몇 정거장 떨어진 난곡의 쪽방을 목도한 날, 나는 가난하지 않았다.

신림동의 일곱 평짜리 원룸은 마포의 아파트와 난곡의 판자촌 중 어디에 더 가까울까? 아무리 노력해도 한강 전망의 브랜드 아파트가 대변하는 삶에 진입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노력을 게을리 하면 도시 빈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달동네 판자촌으로 추락할 것 같았다. 난곡의 안쪽을 바라볼 때마다 ‘여기’가 최악은 아니라는 안도감과 ‘저기’로 굴러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알고 있었다. ‘저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저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서나마 쫓겨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 절박함 앞에서 느끼는 안도와 불안이 부끄러웠다.(p.58~59)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생각의 좌표

홍세화 | 한겨레출판 | 2009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썰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르다>의 저자 홍세화의 에세이입니다.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라는 질문을 통해 생각의 뿌리를 살펴보고,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이어지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답의 중심에는 교육 체계에 대한 쓸쓸한 시선과 동시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합니다. 사유하는 인간의 삶,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는 십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신에게 걸맞는 의식이 무엇인지 주체적으로 찾길 원하는 책임입니다.

홍세화 에세이



## 생각의좌표

홍세화 지음 | 한겨레출판 | 2009년 11월 10일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왜. 어떤. 어떻게. 왜. 내. 내. 내. 내.  
"생각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



1

여러분은 <생각의 좌표>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저자는 과거에 책을 읽지 못한 사람들보다 오늘날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지배세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사람들의 의식 세계는 빈 채로 남아 있지 않고 국가권력이 장악한 제도교육과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미디어에 의해 넘칠 정도로 채워진다”(p.25)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나는 유소년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나는 무식해.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다. 오늘날엔 그런 분을 만날 수 없다. 국가권력이 장악한 제도교육과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미디어에 의해 넘칠 정도로 채워지는 의식세계는, 특히 한국처럼 제도교육이 민주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스스로 책을 읽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지배세력이 요구하는 것만으로 채우게 된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지 못했지만 지배세력이 요구한 내용으로 채우지 않았다 설령 채웠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뤄지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지배세력에 대한 복종의 자발성에서 과거에 책을 읽지 못한 사람들보다 오늘날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더 강한 것은 그 때문이다.(p.25)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학업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일을 '지적 인종주의' 라고 말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억압하는 인종주의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하는데요. 이에 더해 작가는 “우리는 오로지 암기나 문제풀이 능력으로 학생을 평가할 뿐 감수성이나 사람됨에 대해선 거의 무시다”(p.32)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린 학생들에게 등급과 석차를 매기는 것을 당연시한다. 아직 미성년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너는 1등이다', 너는 35명 중에 35등이다' 라고 등수를 매긴다. 이미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반인권적 폭력이다. 우리는 '지적 인종주의' 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는 철저한 지적 인종주의자들이다...더 심각한 것은 학교와 교실이 차별과 억압을 익히는 곳이 돼버렸다는 점이다.(p.27-28)

왜 우리는 만점이 100점일까? 다른 나라들처럼 20점이나 10점이 아니고? 점수 폭이 넓어야 학생들을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기 쉽기 때문이다.(p.32)

저자는 현재 민주공화국의 학교에서도 여전히 민주주의, 자유, 평등, 정의, 공공성이 아니라 질서와 국익, 경쟁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대학의 서열화와 공교육의 공공성 부재는 결과적으로 “지배질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노예를 기르는 동시에 지배구조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했다”(p.61)라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견해를 어떻게 보셨나요?

과거 봉건사회의 노예들에게 신분질서를 스스로 지키도록 내면화한 것보다 더 강력한 지배 장치는 없었다. 그러한 봉건사회의 신분질서 이념을 자유와 평등 이념으로 무너뜨리고 태어난 것이 근대공화국이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학교에서 자유와 평등을 강조해야 할까? 아니면 질서를 강조해야 할까. 질서를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는 일제 강점기 때처럼 질배질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노예를 기르고 있는 것이다. (p.61)

저자는 학교가 지배세력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장이 되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탈학교 운동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p.78)라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의 저자의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지 않는다.

“운동권이 사용한 ‘의식화’라는 말은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고전 명제가 한국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착각을 주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존재에 걸맞는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마르크스도 교육이 ‘존재를 벗어나는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위험을 제기한 바있는데,(...)”(p.73)

“모든 운동진영은 조직 차원에서 탈학교 운동을, 그 당연한 귀결인 ‘우리 학교 만들기’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를 통하여 제도 교육에 충격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야한다.”(p.78)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2007년 파업 농성에 들어갔던 이랜드 어머니 노동자들은 한 나라당에 가장 많은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농성을 벌일 때 한나라 당 사람들은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평소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진보 정당 사람들만 찾아와 농성도 함께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어머니 노동자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의식의 소유자들”(p.87)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어머니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되었다. 그런데 조합원이 되기 두 달 전까지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기껏해야 무관심이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어땠을까?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나 기껏해야 무관심이었다. 그들 자신이 결국 파업 농성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두 달 전까지 파업 농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두 달 전까지 어머니 노동자들은 자신을 배반하는 의식의 소유자들이었다. 그것도 아주 견고한.(p.87)

저자는 교육자본의 형성 비용을 각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부담할 때, 그 교육자본은 사회에 되돌려 주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학생들 자신이 사회적 연대의 구체적 실현인 무상교육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대의식을 가지게 된다”(p.172)라는 저자의 의견을 어떻게 보셨나요?

학생들 자신이 사회적 연대의 구체적 실현인 무상교육제도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대의식을 가지게 된다.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사회환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다. 교육자본 형성 비용을 각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부담할 때, 그 교육자본은 사회에 되돌려 주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p.172)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 사법부

한홍구 | 돌베개 | 2016

<사법부>는 2009년 5월 19일부터 2010년 6월 18일까지 『한겨레』에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을 모아 역사학자 한홍구가 눈물로 써내려간 사법 비사 70년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2007년 10월에 발간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중 제4권 '정치·사법편' 중 사법 부분을 토대로 쓰여 보고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저자는 주로 박정희 집권 이후의 일을 다루었지만, <사법부>라는 거창한 제목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현대사의 민낯을 직면하도록 이끄는 책입니다.



1

여러분은 <사법부>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함께 별점, 소감을 나눠주세요.

저자는 법관들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도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상황에서 '법률과 양심'에 더하여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요구에 따라 재판을 하던 시절이었으니 피해자들의 사법부에 대한 저주가 하늘을 찔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만연한 사법부 불신의 기원은 여기서 비롯된다"(p.12)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의견을 어떻게 보시나요?

중앙정보부-안기부가 행한 사법권 침해와 판결에 대한 개입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사법부는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 국민과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사법부는 가해자였다.(p.11)

1980년대의 공안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나 방청객들이 던진 신발이 법대를 향해 날아가고, 야유와 아우성과 구호가 터져 나오던 난장판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공소장의 오자까지 베낀 판결문 위에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판사들은 체이름 석자를 버젓이 적기도 했다. 이 사회에 만연한 사법부 불신의 기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p.12)

해방 당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미군정은 친일 법조인을 걸러내기 커녕 무자격자들에게도 마구 변호사 자격을 부여했으며, 일제하의 마지막 변호사 시험은 일본인들이 관련 서류를 모두 불태워, “응시자 200명 중 남쪽에 있어 연락된 106명에게 변호사시험 합격 증서를 교부해 판검사로 임명되었다”(p.28)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나요?

해방 당시 조선총독부 재판소의 판사는 250명이었고 검사는 138명이었는데 대부분은 일본인이었다. 변호사는 모두 420명으로 그중 한국인은 250명이었으며 38도선 이남에는 단지 150명이 있을 뿐이었다. 이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미군정은 (...) 마구 변호사 자격을 부여했다. 이때 변호사 자격을 움켜쥔 자들 중에는 일제 때의 법원 서기나 수완 좋은 미군정 통역관이 많았다. 일제하의 마지막 변호사시험은 1945년 8월 14일에 시작하여 민법, 형법, 상법 세 과목만 치르고 해방으로 중단되었다. 게다가 일본인들이 관련 서류를 모두 불태워버렸는데, 응시자들은 집단으로 전원 합격을 요구했다. 응시자 200명 중 남쪽에 있어 연락이 된 106명이 변호사시험 합격 증서를 교부받고 판검사로 임명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p.27-28)

서울고법 '김인중 판사'는 사법파동 때 대법원장을 면담한 평판사 대표로, 서울형사지법 재직 시 반공법 사건에서 자주 무죄를 선고하여 중앙정보부와 검찰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보부는 김 판사가 근무했던 지역에 수사관을 파견했지만 비난할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표적조사를 벌였고, 아무런 비위도 적발하지 못했으나, 그는 재임명에서 탈락했다”(p.85)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김 판사의 이러한 태도에 공감하시나요?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렵다.

정보부가 어떤 구체적 첩보에 기초하여 내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미리 찍어놓고 그의 주변을 “조사하면 다 나온다”라는 식으로 살살이 훑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결과보고서를 보면 수사관들이 만난 사람들은 모두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거나, “조사해보았으나 비난할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p.84)

정보부는 김 판사의 고교 동창으로(...) 친한 약사가 1965년 독한 매독 주사약을 팔아 마약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정지로 석방된 사례를 찾아냈다. (...) 이 사건은 우연히 김 판사에게 배당되었는데 김 판사가 피고가 자신의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사건 심리를 기피해 다른 판사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기 조카가 검찰조사 때 김 판사를 믿고 거만하게 행동했다가 검사에게 밋보여 같이 적발된 약사 일곱 명 중 유일하게 구속되었다. 약사 동창생 사건 처리에서 보듯 김 판사는 오히려 공과 사가 분명한 모범적인 법관임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비위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김인중 판사는 재임명에서 탈락했다.(p.85)

저자는 안기부 조정관들은 형사지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을 통해 안기부의 의사를 관철했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안기부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저자는 만약 안기부가 직접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면 법관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 내부를 통한다면 '외압'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된다”(p.216)라고 덧붙이는데요.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의견을 어떻게 보셨나요?

전두환 정권 시절 법원과 정치권력의 유착이 심해지면서 형사지법은 그 규모가 훨씬 큰 민사지법보다 서열이 앞서게 되었고, 형사지법원장이나 수석부장 출신은 대부분 대법원 판사로 승진했다. (...) 안기부 조정관들은 형사지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을 통해 안기부의 의사를 관철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기꺼이 안기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만약 안기부가 직접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면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법관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 내부를 통한다면 '외압'이란 표현이 무색하게 된다.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사재판을 실제로 안 해보면 그것 경험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외압이 있었다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재판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실제 그런 얘기는 어슴푸레 소문은 돌아다니고 그랬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판사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p.216)

1993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김종훈 판사가 법원 상층부에 개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우리 법관들 중 누가 감히 국민들에게 비친 우리의 모습이 헌법정신에 투철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안기부(중정), 검찰, 심지어는 기무사(보안사) 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재판권을 행사하였는가. 인사권을 통한 간접통제는 없었는가. 왜 법관이 국보위나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나가 있었는가”(p.383)라고 자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쓴 김종훈 판사의 의견서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 사법부 개혁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 4월 29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김종훈 판사가 법원 상층부에 개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 의견서에서 “우리 법관들 중 누가 감히 국민들에게 비친 우리의 모습이 헌법정신에 투철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안기부(중정), 검찰, 심지어는 기무사(보안사) 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재판권을 행사하였는가. 인사권을 통한 간접통제는 없었는가. 왜 법관이 국보위나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나가 있었는가”라고 자문했다.(p.383)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민주화가 되어 덕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사법부와 검찰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저자는 "1980년대에는 그래도 칠혹 같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등불처럼 빛나던 소수의견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의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에서 전원합의로 권력과 가진자들의 손을 밥 먹듯이 들어 준다."(p.405)라며 개탄합니다. 여러분의 저자의 이런 의견을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늘 지적되어온 것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사실 민주화가 되어 덕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사법부와 검찰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기 안기부의 위세에 눌려 있던 사법부와 검찰은 안기부가 한 발 물러난 자리를 메우고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부각되었다. 1988년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의 제2차 사법파동 때는 소장판사들이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위임한 사법부에 기대어 기본권을 보장받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부분을 국민들 자신의 희생과 노력으로 스스로 쟁취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심지어는 매도하기에 이르렀다”라고 개탄했다. 김영삼 정권 출범 직후의 제3차 사법파동 때는 “우리 법관들도 판결로 말해야 했을 때 침묵했고, 판결로 말해서 안 되는 것을 말하기도 했으며 판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실에 등을 돌리기도 했다”라고 자책했다. (...)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보다도 더 참담해졌다고 하면 지나친 평가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980년대에는 그래도 칠혹 같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등불처럼 빛나던 소수의견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전원합의로 권력과 가진자들의 손을 밥 먹듯이 들어 준다.(p.405)

토론 참여 소감을 나눠주세요.

에필로그

## 독서모임을 대하는 자세

이혜숙

---

온라인 독서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각지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함께 읽는 모임들이 번성하기를 기대하며, 폐가수스와 여러 모임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온라인 독서모임의 노하우를 간략히 나누고자 한다.

모임의 초기 단계라면 합의된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대면 모임보다는 편하게 참석할 수 있고, 아직 온라인 모임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가 있을 수 있다. 첫 시간부터, 모임 시간 준수라든지 참석 여부를 미리 고지하는 등의 공동의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고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중에서도 온라인 에티켓을 이야기하고 싶다. 간혹 얼굴의 부분만 보이게 한 다거나, 화면을 끄고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말없이 퇴장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참여자들은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함께 대화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에티켓이 필요하다. 참여 태도에 관한 부분은 초반에 합의 하는 게 좋다. 줌 화면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집중도와 몰입도가 대면보다 훨씬 좋다. 얼굴이 잘 드러나도록 밝은 공간에서 어깨 위 얼굴 전체가 화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참여하는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참여자들에게 채팅창이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온라인 이라도 드러나고 상대가 느끼기 마련이다.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그 모임의 분위기와 신뢰를 만들어 간다.

모임 주기는 팀원들 의견이 중요하다. 2주 한번, 한 달 한 번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정하게 고정된 시간이 좋다. 이랬다저랬다 바꾸면 참여자들이 헷갈리고, 일정 조율하는데 에너지가 든다. 고정된 시간은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가 편해진다.

온라인 독서모임에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할까? 모임 안에서 대화가 깊이가 달라지려면 책은 읽는 게 좋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있다.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경우 발체와 질문이 있어서 책을 못 읽어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발체로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참여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독서모임은 같은 부분을 읽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간혹 잘 모르겠다며 들으려고 왔다는 분들도 있다. 뭔가 대단한 말을 해야 할 그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 것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그 대가는 용기 있는 자신의 말이다.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의견이 될 수 있다. 왜 모르겠는지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용기를 내서 어떤 말이라도 해보는 경험들이 쌓이면 어느새 마이크를 자꾸 켜고 싶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독서모임이 끝나고 나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한다.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는 모임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책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 독서모임 관련 추천 도서

온라인 책모임 잘하는 법 / 김민영 외 / 북바이북 / 2021

세미나책 / 정승연 / 봄날의박씨 / 2021

모든 것은 독서모임에서 시작되었다 / 신재호 외 / 하나의책 / 2021

# 독서모임에 진심입니다

2022 페가수스 참여 후기

## 이안나

저는 독서토론은 너무 재미있는데, 논제를 만드는 게 항상 숙제였어요. 논제를 고민 끝에 만들었는데 이것이 심지어 선택이 되지 않으면, 잘하고 싶는데 방법을 모르니 너무 답답했어요. 모든건 시간이 답인 듯 해요. 토론에 참여하면 할수록 논제 채택률도 많아지니 잘 하고 있다고 격려받는 느낌도 들었고요. 논제 북을 만들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토론 때도 아무 말 대잔치라 한 번 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해 봐야지 다짐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열정의 페가수스 선생님들 너무도 고맙습니다:) 아직도 토론은 너무 멀리지만, 저는 독서토론이 참 좋아요. 소설 속 주인공을 함께 씹기도 하고, 나는 No.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재미가 있어요. 2023 페가수스도 너무 기대됩니다. 사랑합니다 페가수스♡

## 송영미

페가수스는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따라 속 깊은 생각을 이끌어 내며 함께 표현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단편적인 나의 견해는 매번 산산 조각이 났다. 그 조각들 사이로 세상 밖으로 튕겨져 나와 매번 즐거운 비명을 질러대곤 했다. 페가수스 모임이 끝나고 나면 zoom 끄고 그 자리에 한참을 머물고 했다. 페가수스 멤버들의 얼굴이 가슴 여기저기에 남아있어 천천히 그들을 다시 내보내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만큼 토론 시간에 서로의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었으리라. 서로가 어떤 배경을 지녔는지, 서로의 부가 얼마인지, 서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다만 아는 것이라곤 서로가 '거기에 있음' 뿐이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서로 깊은 마음을 말하고 느끼며 연결되는 시간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짐이었고 기쁨이었다. 매번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이 자리를 지키며 계속 이어가고 있었기에 마음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 그저 감사하고 기쁘다. 기여한 바가 미천하기에 이런 지면을 할애받은 것도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페가수스 여러분, "사랑합니다."

### 길준경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멋진 분들과 인연이 되어 감사합니다. 논제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 수업의 후속 모임으로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의 크기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진행했던 그림책 '여우'로 다양한 경험을 나눠주시고 논제도 너무나 잘 제출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폐가수스 모든 분께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 김지혜

올봄 처음 만나서 어느덧 연말이 되었네요. 독서모임을 오래 했지만,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드는 일은 항상 너무 어려웠습니다. 폐가수스 모임을 하면서 한 달에 두 번씩 논제를 만들다 보니 질문 만드는 일이 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더불어 좋은 질문을 알아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동안 만든 논제들을 정성껏 다듬어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찬찬히 되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책과 토론에 이렇게 진심인 분들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질문하며 읽는 습관을 길러준 폐가수스 모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 허보람

모임을 꾸리고 두 번째 읽었던 책이 모니카 페트의 <행복한 청소부>였습니다. 토론하고 밀려오는 감정으로 한참을 노트북 앞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이 충만한 감정을 개인 블로그에 탈탈 털어내고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꼭 채워진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폐가수스"는 깊이 있는 토론의 황홀함을 느끼게 해준 모임입니다. 첫 토론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깊이에 놀라 아무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열정 넘치는 폐가수스쌤들 사랑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 함께 하는 시간에 끼어 삶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인수

그녀들과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난다. 한 번 만나면 2시간 내내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지만, 사실 나는 그들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면에서 분개하며,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느끼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독서 모임에 세상 진지한, 나를 닮은 그들을 보면 가슴 어딘가가 뭉클해진다. '책을 좋아한다.'라는 공통 관심사만으로 이루어진 관계란, 생각보다 경이롭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가족관계, 학창 시절, 고향, 나이, 직업 등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독서 모임의 경이로움'을 느끼길 바란다. 우리의 논제집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이혜숙

그동안 책모임을 많이 참여했지만, 진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참여자와 어떤 질문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학습관에서 진행되었던 <독서토론 진행자 실천과정>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은혜와도 같았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의 열정 덕에 저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책을 깊이 팔 수 있는 모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책 모임에서도 미리 논제를 준비해서 진행하니, 오히려 부담이 덜 되고 편안하게 참석해서 즐기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의 능력이라도 집단 지성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함께 읽기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 폐가수스로 즐겁게 토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 박찬선

언젠가 '폐가수스 모임이 있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실까요. 다들 웃어 넘기셨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할 2023년의 1/3주 수요일 오후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읽고, 나누어요!

## 안미성

혼자 책을 읽으며 피어났던 여러 생각들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나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혼자 읽지만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책 속 이야기는 나만의 생각을 넘어 세상과 연결되면서 더욱 자라나고 선명해집니다. 덕분에 혼자 읽을 때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페가수스' 선생님들은 지난 1년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묵묵히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 정경희

'독서토론 진행자 실전과정'이 끝나고 이렇게 모임을 지속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직접 대면해서 만나질 못했기에 서로를 이어주는 끈끈함이 적어서, 중간에 흐지부지 모임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몇 번 빠지기는 했지만 2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만나니 정도 들고 따뜻함이 느껴져서 줌에 접속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프레드릭이 모아 놓은 햇살을 받는 느낌이랄까요.

처음에는 10명 가까운 인원이 2시간 동안 토론하면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나눌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조금만 이야기해도 끝나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깊고 다양한 이야기 나눔이 가능하더라고요. 책을 한 권 읽고 토론에 참여했을 뿐인데 참여한 인원수만큼의 책을 더 읽은 느낌이 들어서 풍성한 마음이 든답니다. 프레드릭이 모아 놓은 색깔과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듣는 느낌이랄까요.

논제집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착착 진행하는 회원님들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프레드릭>에서 말하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사계절"이 아니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페가수스'라고요. 함께해서 행복해요. 모자라는 점 도와줘서 감사하고요.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발행인 조영호

지은이 페가수스 (길준경, 김지혜, 박찬선, 송영미, 안미성,  
이안나, 이혜숙, 유영미, 정경희, 최인수, 허보람, 홍은화)

역은이 박찬선(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평생교육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우만동)

031-248-9700 | <https://learning.suwon.go.kr>



